

18일 Market Index			
↓ 코스피	↓ 코스닥		
6869.83 (-108.11)	834.20 (-30.45)		
↑ 금리 (한국은행)	↓ 환율 (환율)		
3.847 (+0.051)	1412.15 (-0.85)		

전·월세난 ‘패닉 바잉’ 20·30대 매수자 급증

7월 서울 생애최초 매수 현황

전·월세난이 심화되면서 지난달 2030세대가 내 집 마련에 적극 나섰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빌라 거래가 증가하는 등 지난 2021년 ‘패닉 바잉(공황 구매)’ 당시와 비슷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18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대법원 등 기정보광장 서울 집합건물 생애최초 매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7월 서울 전체 생애최초 매수 건수는 7547건으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지난 2021년 11월(7886건)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연령별로는 20·30대의 매수가 늘었다.

서울 생애최초 매수건수 7547건
지난 2021년 11월 이후 가장 많아

30대 매수 4300건, 전체의 57%
20대 887건, 비중 11.8%로 확대

은평구 거래비중 11.1% 가장 높아
실수요자 중심 빌라 매수도 급증

30대의 생애최초 매수는 지난달 4300건으로 전월(3979건) 대비 늘면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7%로 확대됐다. 20대 역시 6월 765건에서 7월 887건으로 늘며 비중이 11.8%로 높아졌다.

반면 같은 기간 50대는 654건에서 571건, 60대는 321건에서 274건으로 감소해 지난달 생애최초 매수 증가는 20·30대를 중심으로 나타났다.

직방 관계자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는 일반 매수보다 상대적으로 완화된 대출 기준이 적용되는 만큼 자금 여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20·30대 실수요층의 매수 여건에도 영향을 미쳤다”며 “최근 전세 매물 부족으로 매수를 선택하는 수요와 주택 구입을 고려하던 실수요층의 움직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는 은평구를 비롯해 2030세대도 진입 가능한 가격대의 지역에서 생애최초 매수가 두드러졌다.

서울 전체 생애최초 매수 가운데 은평구가 841건(11.1%)으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비중은 올해 상반기 5~6%대를 유지하다 6월 8.7%, 7월 11.1%로 빠르게 높아졌다. 노원구와 강서구는 각각 607건(8.0%), 526건(7.0%)으로 그 뒤를 이었다.

직방 관계자는 “은평구는 서울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진입 가능한 가격대의 주택이 형성돼 있고, 지하철 3·6호선을 통한 도심 접근성과 재개발을 통해 조성된 대단지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 생애최초 매수층의 관심을 끈 배경으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은평구의 경우 매수세가 몰리면서 신고가 거래도 늘었다.

같은 단지·같은 면적의 직전 최고가를 넘어선 신고가 거래 비중은 올해 4월 18.1%에서 5월 21.1%, 6월 24.5%, 7월 28.7%까지 상승했다.

단지별로는 응암동 ‘백련산해모로’, ‘녹번역e편한세상캐슬’을 비롯해 수색·증산동 DMC뉴타운 일대의 DMC SK뷰아파트·포레·DMC롯데캐슬더퍼스트·DMC 센트럴하이(2단지) 등 역세권이나 준신축 대단지를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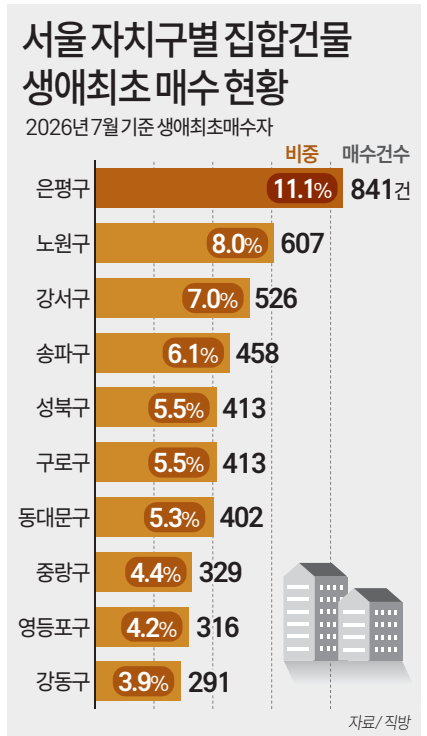
그간 부진했던 빌라(연립·다세대주택) 거래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매물 자체가 귀해졌고, 보증금 인상과 함께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실수요자들이 빌라 매수로 눈을 돌린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플래닛이 발표한 올해 2분기 서울 연립·다세대주택 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분기 거래금액은 4조9346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2.1% 늘었다. 53억원에 육박하면서 지난 2021년 2분기(5조1887억원) 이후 최대치다.

거래량은 1만1536건으로 전분기 대비 11.7% 증가했다. 거래량 역시 2021년 3분기(1만3652건) 이후 가장 많았다. /한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metro



매디슨 황 엔비디아 수석이사 18일 서울 서초구 LG 데이터팩토리를 방문해 LG전자 클로이드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있다. /LG전자

LG-엔비디아, 로보틱스 협력 ‘속도전’

젠슨 황 장녀 매디슨 황 이사
양재 LG 데이터팩토리 찾아
류재철·현신균 CEO 등 참석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장녀인 매디슨 황 엔비디아 옴니버스·로보틱스 제품 마케팅부서 수석 이사가 18일 LG전자의 로봇 사업 핵심 거점인 양재 데이터팩토리를 찾았다.

최근 미래 전략사업 협력에 손을 맞잡은 LG전자와 엔비디아가 로봇 학습 데이터와 퍼지컬 인공지능(AI) 기술을 결합하며 로보틱스 분야 협력을 구체화하고 있다.

LG전자는 서울 서초구에 구축 중인 LG 데이터팩토리에서 엔비디아 핵심 관계자들과 양사 협업 방향을 점검하고 시너지 창출 방안을 논의했다고 18일 밝혔다. LG 측에서는 류재철 LG전자 CEO와 현신균 LG CNS CEO, 정수현 LG사이언스파크 대표 등 주요 계열사 경영진이 참석했다.

엔비디아 측에서는 매디슨 황 수석 이사가 직접 방문했다. 황 수석 이사는 엔비디아에서 옴니버스와 로보틱스 등 퍼지컬 AI 관련 제품 마케팅을 담당하며 관련 생태계 확대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 만남은 LG와 엔비디아가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엔비디아 본사에서 미래 전략사업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지 나흘 만에 이뤄졌다. 양사는 업무협약에 이어 로봇 데이터팩토리 구축 현장에 다시 협의를 진행하며 로보틱스 분야 공동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양사 관계자들은 이날 연례 풀가동을 목표로 구축 중인 양재 데이터팩토리의 가동 현황도 살펴보았다. LG전자는 자체 개발한 가정용 로봇 ‘LG 클로이드(CLOiD)’를 투입해 데이터 생성과 수집, 학습

을 진행하고 있다.

데이터팩토리는 로봇이 다양한 작업을 학습하고 데이터를 검증·정제하는 공간이다. LG 클로이드는 가정 환경에서 청소를 하고, 미국 테네시 세탁기 공장을 모사한 제조환경에서는 부품 운반·적재·조립 등을 수행한다. LG CNS의 물류 자동화 솔루션과 LG이노텍의 로봇 손 학습 공간에도 로봇이 투입돼 있다.

확보한 데이터에는 엔비디아의 퍼지컬 AI 기술이 접목된다. 옴니버스 라이브러리와 코스모스 오픈월드 모델, 아이작 오픈로보틱스 개발 플랫폼 등을 활용해 제조물류 현장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증강·학습하고 로봇 학습에 활용한다. LG전자는 이를 통해 데이터 수집부터 학습, 성능 개선으로 이어지는 데이터 선순환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2면에 계속〉

/차현정 기자 hyeon@



metro

셀트리온, 프랑스 지프레 통합… 9000개 약국망 확보

바이오시밀러 유통망 확보에 더해
더마·타사 의약품 등 플랫폼 선배

셀트리온이 그동안 유럽에서 자사가 개발한 바이오시밀러를 직접 판매하는 체제를 구축해 경쟁력을 강화한 가운데 현지 유통망까지 확보해 더마 화장품, 헬스케어 제품, 타사 의약품까지 아우르는 유통 플랫폼을 선보인다.

셀트리온은 지난 5월부터 추진한 프랑스 헬스케어 기업 ‘지프레’ 인수 후 통합 작업을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은 최근 유럽 현지를 직접 찾아 조직 운영과 약국 가동 상황을 점검하며 실행 속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이번 유럽 사업 정비의 핵심은 유통망 플랫폼화다. 유통망 자체를 하나의 거대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지프레가 보유한 프랑스 내 9000여 개 약국 영업망과 800여 개 병원 공급망을 자사 제품 판매에만 한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자사 제품과 직접 경쟁하지 않는 타사의 바이오시밀러, 제네릭 의약품, 헬스케어 제품을 적극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셀트리온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는 셀트리온그룹 내 계열사 셀트리온스킨큐어가 꼽힌다. 오는 2027년 초 프랑스 약국 시장에서 셀트리온스킨큐어의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 ‘지피덤’을 공개할 예정이다. 피부 질환 바이오의약품 영업으로 구축

한 현지 의료진 네트워크와 지프레 약국망, 지피덤의 고성능성 K더마 뷰티를 결합한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복안이다.

실제로 셀트리온스킨큐어는 최근 글로벌 공략에 시동을 걸었다. 2026년 상반기 매출액 17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1% 증가했다. 이중 해외 매출은 4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 늘면서 전체 매출에서 해외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27%로 커졌다. 이러한 해외 성과는 폴리데옥시리보뉴클레오타이드(PDRN), 상피세포 성장인자(BGF) 등 항노화 성분 중심 포트폴리오 재편이 뒷받침됐다. 〈4면에 계속〉

/이청하 기자 mlee236@



metro

메트로 한줄뉴스



▲이 대통령, 을지 NSC 전체회의 주재…“을지연습 北 공격 의도 없어”
▲국힘 “‘李, 1분1초가 위험한 대통령…한미동맹 안보·통상 무너져” /사진 뉴시스

▲‘통일교 1억’ 징역 2년 확정된 권성동도 변호사 등록 취소될 듯
▲공동근로복지기금 탈퇴 시 3주 내 보고…사각지대 해소

▲다시 무더워진 서울, 19개구 폭염주의보…대응 체계 재가동
▲위생·원산지 위반 업체, 최대 6개월 학교급식 입찰 제한

中, 내수 기반 파운드리 공세… 삼성 ‘2나노·美 생산’ 맞불

中 파운드리 업체 성장세 가팔라
삼성, 선단공정 중심 경쟁력 강화
美 테일러 공장 4분기 가동 예정

인공지능(AI)발 반도체 수요가 확산하면서 중국 파운드리 업체들의 성장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중국 1·2위 업체인 SMIC와 화흥반도체가 높은 가동률을 바탕으로 생산능력 확대에 나서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2나노 등 선단공정과 미국 테일러 공장을 앞세워 파운드리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최대 파운드리 업체 SMIC는 올해 2분기 매출 30억 560만달러(약 4조원)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한 규모로 분기 매출이 3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순이익은 4억 7920만달러로 같은 기간 261.7% 증가했다.

공장 가동률은 93.7%까지 올라 사실상 풀가동에 가까워졌다. SMIC는 늘어나는 주문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공장에 장비를 추가하고 신규 생산라인 가동을 앞당기는 등 생산능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 2위 파운드리 업체 화흥반도체도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건설하고 있는 반도체 공장.

/삼성전자

높은 가동률을 이어가고 있다. 2분기 매출은 7억 1750만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가동률은 102.8%까지 상승했다. AI 수요가 최첨단 반도체에서 성숙공정 기반의 주변 칩으로 넓어지면서 중국 파운드리 업체들이 수혜를 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중국 파운드리 업체들의 성장세가 당장 삼성전자의 선단공정 경쟁력을 위협하는 수준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SMIC는 중국에서 7나노 공정으로 CPU와

GPU 등 로직 반도체를 양산할 수 있는 유일한 업체지만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확보가 제한돼 첨단공정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서도 삼성전자와 SMIC의 점유율 격차가 유지되고 있다.

그럼에도 중국 업체들이 거대한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생산능력과 기술력을 빠르게 키우고 있다는 점은 변수다. 특히 AI 투자 확대에 따른 수요가 성숙공정까지 번지면서 높은 가동률과 가격 상승이

투자 여력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삼성전자는 선단공정을 중심으로 파운드리 경쟁력 회복에 나서는 모습이다. 올 하반기 2세대 2나노 모바일 제품 양산을 확대하고 AI·고성능컴퓨팅(HPC) 고객수주를 늘릴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최근 2분기 실적발표에서 고대역폭메모리(HBM) 베이스다이와 미국 고객 주문 확대에 힘입어 파운드리 매출이 증가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미국 테일러 공장도 올 4분기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테일러 공장은 2나노 공정을 중심으로 생산능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테일러와 165억달러 규모의 반도체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하는 등 대형 고객 확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삼성전자가 메모리와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을 함께 제공할 수 있다는 점도 AI 반도체 시장 공략에 활용할 수 있는 강점으로 꼽힌다. 중국 업체들이 성숙공정을 중심으로 빠르게 몸집을 키우는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2나노 수율과 공급력을 높이고 AI·고성능 컴퓨팅(HPC)용 반도체 고객을 추가로 확보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중국 파운드리 업체들과 삼성전자는 주력 공정과 기술 수준에서 차이가 있어 당장 직접적인 경쟁 구도로 보기는 어렵다”며 “다만 높은 가동률과 가격 상승이 이어지면 생산능력과 기술 투자를 확대할 여력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중장기적인 성장 속도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metro

李 “전작권 환수·핵잠수함 사업 차질없이 추진” 4년간 청년 일자리 28.5만개 감소 AI 고노출 업종 중심 고용조정 확산

을지 국무회의서 자주국방 강조
폭우 관련 선제적 대비체계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2026년도 을지1 및 제36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동맹이 굳건해야 안보의 근간이 더 튼튼해질 것이고, 또 우리 자신의 힘을 키워야 동맹으로서의 가치와 필요성도 더 커지게 된다”면서 임기 내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와 핵잠수함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을 당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을지 프리덤 실드·UFS)’ 축소를 지시한 가운데, 한미 동맹이 굳건하려면 자주국방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에 글로벌 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또 전쟁 양상도 재래식 전투와 테러, 사이버 공격 등이 복합 작용하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며 “군대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작은 빈틈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보 위협 대비에 늘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 이번 을지연습 과정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회 을지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우리의 방위태세를 보다 면밀하게 점검·보완하고, 국가의 총체적 위기 대응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야겠다”고 지시했다.

또 “강한 국방은 국민의 삶을 지키고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며 현재 우리나라의 국방력은 스스로를 지킬 역량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국방력을 좀 더 굳건하게 만들려면 작전 능력의 전방위적인 고도화, 또 이를 함께 이루어낼 인재 육성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라며 “이를 위해서 전시 작전권의 임기 내 환수를 당초 정부 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겠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전장의 구분이 무의미해진 미래전에 대비하려면 통합적인 작전 능력을 갖춘 간부도 길러내야 한다”며 “국군사관학교 창설 준비 또한 흔들림 없이 진행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율러 “동맹이 굳건해야 안보의 근간이 더 튼튼해질 것”이라며 “보다 건설적이고 굳건한 한미동맹의 미래를 상징할 핵잠수함 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경남 거제 등 남부지방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데 대해 “재난을 미리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국가체계를 갖추는 데 보다 주력해야겠다”며 “관련 예산과 인력 확충, 제도 개선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사현정 기자 syj@



metro

로봇 핵심부품 등 하반기 수주 활동 본격화

» 1면 ‘LG-엔비디아, 로보틱스’서 계속

양재 데이터팩토리는 연면적 1만㎡ 규모로 조성된다. LG전자는 연내 투입 로봇을 수백 대 규모로 늘리고, 직접 수집한 데이터와 증폭·합성한 가상 데이터를 합쳐 총 10만 시간 규모의 학습용 데이터를 확보할 계획이다. 헛수로 환산하면 약 12년치다. 이를 활용해 휴머노이드 로봇의 성능을 좌우하는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RFM)도 고도화한다.

LG전자는 로봇 완제품뿐 아니라 핵심 부품과 학습 데이터까지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 지난 7월 CEO 직속 로보틱스 사업센터를 신설했으며 창원공장에는 로봇 핵심 부품인 액추에이터 파일럿 생산라인을 구축해 초도 생산에 들어갔다. 하반기부터는 잠재 고객을 대상으로 외부 판매를 위한 수주 활동도 본격화할 계획이다.

엔비디아와의 협력도 피지컬 AI 사업 전반으로 넓어지고 있다. 로봇 분야에서

는 LG전자의 하드웨어·제조 역량과 엔비디아의 피지컬 AI 기술을 결합한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AI 팩토리에서는 데이터센터 통합 플랫폼과 LG전자의 인프라 솔루션 연계 및 고밀도 냉각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모빌리티 분야에서 차세대 고성능 컴퓨팅 플랫폼 관련 협업에 나섰다.

류재철 LG전자 CEO는 “그룹 내 핵심 역량을 결합하는 ‘원 열지’ 기반의 시너지와 글로벌 파트너사와의 전략적 협업을 통해 피지컬 AI 경쟁력을 확보하고 로보틱스 토탈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AI 고노출 업종 감소기여율 94%

최근 4년간 청년층 일자리가 28만 5000개 감소한 가운데 감소분의 94%가 인공지능(AI) 노출도가 높은 업종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업종에서 50대 고용은 늘어나면서 AI 확산이 신규 채용 축소와 경력직 선호를 강화하는 ‘연공편향 기술변화’와 맞물렸다는 분석이다.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BOK 이슈노트 제2026-19호-청년고용 위축, AI 탓인가?’에 따르면 국내에서 업무목적으로 AI를 활용하는 비율은 2025년 기준 51.8%로 미국의 26.5%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았다.

아직 전체 고용률과 실업률에서는 AI 확산에 따른 뚜렷한 변화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청년층과 AI 고노출 업종에서는 차별화된 고용 조정이 나타났다.

2022년 6월부터 2026년 6월까지 15~29세 청년층 일자리는 28만 5000개 감소했다. 이 가운데 26만 8000개가 직무상 AI 노출도가 높은 업종에서 줄어 감소 기여율이 94%에 달했다.

반면 같은 기간 50대 일자리는 23만개 증가했고, 이 중 17만 3000개가 AI 고노출 업종에서 늘었다. 전체 증가분의 75.2%다. 같은 산업 안에서도 청년과 50대의 고용 흐름이 반대로 움직인 셈이다.

세부 업종별로는 2022년 6월 대비 청년 취업자 수가 정보서비스업에서 31.4%, 출판업에서 27.4% 감소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은 16.6%, 전문서비스업은 11.6% 줄었다. 반면 해당 업종의 30~59세 핵심 연령층 고용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고학력 청년층의 고용 여건도 상대적으로 악화했다. 2022년 11월 이후 대졸 청년

층의 평균 실업률은 7.0%로 전문대졸 이하 청년층의 5.4%보다 1.6%포인트(p) 높았다. ChatGPT 출시 이전에는 각각 8.2%와 8.0%로 비슷했다.

시간 관련 추가취업 가능자를 포함한 확장실업률도 대졸 청년층이 9.6%로 전문대졸 이하의 8.5%보다 1.1%p 높았다. 고학력일수록 AI에 노출되는 지식·분석 업무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AI 고노출 업종의 고용 감소와 일관된 흐름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한은 연구진은 최근 청년고용 위축을 모두 AI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팬데믹 당시 과잉채용이 정상화되는 과정과 기업 내부교육 축소, 장기고용 관계 악화, 공채 대신 수시·경력직을 선호하는 채용 방식 변화가 함께 작용했을 수 있어서다.

재택근무 확산도 청년의 비공식 현장학습을 줄이고 기업의 교육·감독 비용을 높여 경력직 선호를 강화했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 직업별 AI 노출도와 재택근무 가능성 사이의 상관계수는 0.742로 높게 나타났다.

연구진은 AI가 청년고용 위축의 단일 원인이 아니라 기존에 진행되던 경력 사다리 약화를 가속한 요인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청년층은 AI 활용도와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적응력이 높은 만큼 생산성 향상과 신규 일자리 창출의 장기적인 수혜자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한은 연구진은 “정책은 기존 초급 일자리를 그대로 보전하기보다 청년이 AI를 활용하면서 경험과 숙련을 축적할 수 있는 새로운 경력 사다리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



metro

韓·美·日 국채금리 치솟자 증시 흔들… 기업 이자부담 커진다

美 30년물 5.31% 19년 만에 최고권
韓 10년물 4.3%대·日 2.93% 기록
전쟁발 에너지값 물가 전반으로 확산
재정적자·국가부채 금리 밀어올려
AI 기술주 중심 위험자산 조정 우려
차입비용 늘어 수익성 악화 전망

한국과 일본, 미국 등 주요국 국채 금리가 뛰고 있다. 중동전쟁으로 누적된 에너지 비용 상승분이 임금·식품·서비스 가격으로 전이되는 '2차 물가 압력'으로 이어지면서 각국 금리를 일제히 밀어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각국 정부의 부채와 재정적자, 인공지능(AI) 분야를 선도하는 대형 기술 기업들의 대규모 대출도 원인으로 꼽힌다.

시장에서는 치솟는 국채 금리 상승세가 글로벌 증시의 악한 고리를 흔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금리가 오르면 기업들이 돈을 빌리는 이자 비용이 늘어나 수익성이 악화된다.

◆글로벌 국채 금리 상승세 지속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날 3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전장보다 5bp(1bp=0.01%포인트) 상승한 5.31%를 기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초기였던 2007년 6월 기록한 5.44%에 근접한 것으로 19년 만에 최고치다.

장기 금리 급등 배경은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 미국의 국가부채 증가와 대규모 국채 발행에 대한 걱정이 자리 잡고 있다. 여기에 AI 인프라 구축에 따른 경제 성장 기대감, 정부의 지속 불가능한 재정 지출 증가에 대한 우려 등도 지목된다.

한국 국채 금리도 뛰고 있다. 금융투자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뉴시스

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채권의 방향성을 보여 주는 국고채 10년물의 금리는 이날 연 4.382%까지 상승했다. 지난해 말 3.385%에서 1%포인트 가까이 오른 수치다. 지난 24일에는 연 4.47%로 연중 최고치를 찍었다.

이웃한 일본도 국채 금리가 뛰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일본 채권 시장에서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2.93%까지 상승했다. 이는 1996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닛케이는 지난달 말 미국과 일본이 엔화를 매수하며 외환시장에 개입한 이후 일본은행이 조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확산하면서, 채권 매도세는 강해지고 매수세가 약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때 디플레이션(물가 하락)을 우려하던 일본이지만, 중동 전쟁의 여파와 기업의 비용 부담이 소비자물가(CPI)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일본은행은 금리 인상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영국·독일 등도 상승폭은 둔화됐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고, 글로벌 금리 상승 전망은 쉽게 꺾이지 않고 있다. 전쟁 기간 동안 누적된 에너지 비용 상승분이 임금·식품·서비스 가격으로 전이되는 '2차 물가 압력'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소시에테 제네랄의 수비드라 라자파와 금리 전략가는 "글로벌 채권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비슷하다. 정부 부채와 재정 적자가 원인이다. 이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의 리서치 조직인 블룸버그이코노믹스(BE)의 집계에 따르면, 2028년까지 주요국 금리 수준은 미·이란 전쟁 이전 전망보다 최대 0.5%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경

우 현재 연 3.75%(상단 기준)인 기준금리가 올해 말까지 유지되고, 2027년 말에도 연 3.5%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됐다.

BE는 한국은행이 전 세계적인 통화 완화 흐름에서 벗어나 내년 상반기까지 네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연 2.75%인 기준금리가 2026년 말 연 3%로 오른 뒤 2027년 말에는 연 3.5%까지 상승하고, 이후에도 같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 예상이다.

◆기업 자금조달 부담 우려

시장에서는 "채권 금리가 지속해서 오르고 경제가 흔들리면 불안한 주식시장의 낙관론도 결국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금리가 오르면 미래 수익의 가치가 떨어지는데, 미래에 높은 이익을 낼 것이라는 기대 속에 급등했던 AI 기술주들이 특히 더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날 코스피는

1.55% 하락했다. 지속된 AI 거품 우려와 치솟는 국채 금리 등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일본 나케이225는 2.54% 하락 마감했다. 전날 뉴욕 3대지수도 모두 하락했다.

특히 시장에서는 일본 국채 금리의 가파른 상승에 긴장하고 있다. 일본 금리가 다른 국가 금리를 자극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도 있다. 영국의 자산운용사 AFH 웰스 매니지먼트는 "일본의 채권 금리가 오르면 일본 투자자들이 자금을 본국으로 거둬들이기 위해 미국 국채를 팔 수 있으며, 이는 미국 국채 금리에 상승 압력을 가한다"며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분석을 빌려 일본 국채 금리가 0.1%포인트 오르면, 이는 미국 등 주요국 국채 금리를 0.02~0.03%포인트가량 밀어 올리는 연쇄 효과를 낳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나마 엔화 약세가 위안인 상황이다. 카렌 라이히고트 피시먼 골드만삭스 전략가는 "일본의 재정 부담과 높은 미국 국채 금리, 일본은행(BOJ)의 점진적인 금리 인상 기조를 고려하면 저평가 상태에 놓여 있는 엔화가 앞으로 약세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세계적으로 치솟는 국채와 회사채 금리는 가계와 기업 모두에 부담이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각종 대출금리가 상승하면 가계에선 실질 소득이 줄어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 기업도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해 투자가 줄 가능성이 크다. 이자 비용 증가는 수익성 악화로 이어져 신용등급 하락 위험에 직면할 수도 있다.

/허정윤 기자

zolkova@metroseoul.co.kr



metro

연금개혁 다시 시동… '하후상박·연기금 운용' 쟁점 부상

국회 연금 관련 법안 13건 상정
리밸런싱 유예 놓고 여야 이견
직역연금 수급 제한 완화 논의
기초연금 개편안 이달 말 발표

지난해 3월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인상 이후 멈춰 있던 연금개혁 시계가 다시 움직이고 있다. 하반기 국회 들어 13건의 연금 관련 법안이 입안됐고, 분야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직역연금 등 다양한 영역의 안건이 상정됐다.

정부는 기초연금의 '하후상박' 방식의 개편안을 논의하는 등 압박에 속도를 낸다. 18일 의안입법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에 상정된 연금 관련 법안은 13건이다. 국민연금 관련 법안이 6건(중복 포함), 기초연금 관련 법안이 5건 입안됐으며,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직역연금 관련 법안도 2건 상정됐다. 대표발의자를 기준으로 민주당이 10건, 국민의힘이 2건, 조국혁신당이 1건의 법안을 상정했다.

◆국민연금, '연기금 운용' 최대 쟁점

국민연금과 관련한 최대 쟁점은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방침에 대한 내용이다. 연기금의 지속성을 위해선 높은 수익률이 지속돼야 하지만, 최근 연기금이 국내 주식시장의 가격 부양에 동원됐다는 논란이 발생했던 만큼 적절한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행 제도 하에서 국민연금은 보건부장



한 시민이 노인 일자리 정보를 들여다보고 있다.

/뉴시스

관의 운용계획에 따라 자산 종류별 목표와 비중을 설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올 상반기 국내 주식시장의 가파른 가격 상승으로 당초 운용계획 상 국내주식 목표 비중이 초과됐으며, 운용계획에 따른 국내주식의 대규모 매도 시 국내 주식시장에 가격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민주당은 금융시장이나 외환시장에 급격한 변동이 발생해 연기금의 당초 운용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리밸런싱(자산 재조정)을 유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민의힘은 국민연금의 리밸런싱 유예와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으로, 지난달 말에도 "국민연금기금은 정권의 증시 부양용 펀드가 아니다"라고 지

적한 바 있다.

빠르게 부상한 'ESG 공시' 관련 내용도 도마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지난 7월 29일 위원장 명의로 전반기 국회에서 입안됐던 7개 법안을 통합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해 입안했다. 해당 법안은 부동산·사모펀드·인프라 투자 등 대체투자 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내용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관련 기준을 신설해 연기금의 공공성·책임성을 제고하는 내용이다.

◆기초연금, 직역연금 '역차별' 해소 논의

기초연금과 관련한 최대 쟁점은 공무원·군인 등에 지급되는 '직역연금'과의 연계 및 형평성 문제다. 현행 기초연금 제도

는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정하고 있는데, 기초연금 지급액과 지급 대상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저소득층 역차별' 및 '사각지대' 문제가 불거지고 있어서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공무원·군인·교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의 기초연금 지급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도 이달 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하의 직역연금 수급자에게는 기초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별도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정부와 여당이 논의중인 '하후상박' 방식의 기초연금 개혁 논의도 속도를 낸다. 민주당은 최근 기초연금의 산정 기준액을 중위소득 기준 50%의 노인으로 변경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지급액에 차등을 두는 법안을 발의했다.

◆정부도 '연금개혁' 박차

연금의 사각지대 해소와 연금개혁의 지속 추진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정부도 연금 개혁 논의에 속도를 낸다. 정부는 최근 기초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저소득층 노인에게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한 '하후상박' 방식의 기초연금 개혁의 정부안 마련을 위해 논의를 지속하고 있는데, 당초 정치권에서 논의됐던 형태보다는 소득 기준이 크게 완화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노인일수록 더 많은 기초연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하후상박' 방식의 기초연금 개편안을 이달 말 발표한다. 최초 논의 당시에는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의 50%로 알려졌다. 최근 논의에서 중위소득 100%까지 기준을 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기존의 '소득 하위 70% 노인' 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이다.

지급 구조는 기존 수급액을 유지하면서도, 향후 인상되는 금액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해 분배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기초연금 수급자들이 소득 감소를 겪지 않도록 하면서도, 저소득 노인에게 더 많은 지원이 돌아가도록 하는 구조다. '사각지대' 지적이 있었던 기초연금의 부부금액 제도도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에 대한 지급 제한을 개선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기존 수급자의 연금은 줄이지 않되, 앞으로 인상되는 금액은 저소득층에게 더 많이 돌아가도록 제도를 개선하라"는 방침을 제시했고, 이달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부부의 기초연금액인 50만원이 가계마다 가치가 다른 만큼,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세부 기준을 잘 만들어 달라"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metro

K-푸드 영토 확장… 내수사업 줄이고 해외생산 인프라 확충

확장 대신 슬림하게

〈下〉‘투트랙 전략’ 박차

삼양·농심, 라면 해외사업 호조
CJ제일제당, 만두·햇반 중심 확장
오리온, 해외 생산기지에 자금 투입
매일유업, 美 ‘K-웰니스’ 시장 공략
남양유업, 해외·단백질 중심 개편



삼양식품이 지난 7월 30일 서울 중구 명동사육에 조성한 '페포 라운지'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삼양식품

식품업계가 국내에서는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고수익·성장 중심 제품으로 사업 구조를 슬림화하는 한편, 여기서 확보한 자원과 역량을 글로벌 신규 생산기지 구축과 해외 유통망 확보에 집중 투입하고 있다.

◆해외 거점 증설, K-푸드 신영토 확장
글로벌 사업 확장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라면과 스낵을 앞세운 주요 식품사들이다.

라면업계 양대산맥인 삼양식품과 농심이 대표적이다. 삼양식품은 2분기 해외 매

출이 전년 동기 대비 46.7% 증가한 6458억원을 기록하며 창사 이래 최대 분기 해외 실적을 올렸다. 미국(+54%), 중국(+44%), 유럽(+61%) 등 주요 시장에서 고른 성장을 보였으며, 불닭브랜드 누적 판매량은 100억개를 돌파했다. 삼양식품은 밀양공장 등 국내 생산 인프라 효율성 개선과 해외 법인 역량 강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농심 역시 해외사업 호조로 실적 반등

에 성공했다. 상반기 연결 매출 1조8901억원 중 해외 매출 비중이 40.2%까지 확대됐다. 내수 침체로 국내 법인 매출이 0.5% 감소한 반면, 해외 법인은 26.8% 증가했다. 특히 미국(2873억원)과 중국 시장 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유럽 법인 매출이 771.9% 급증하며 체질 전환의 성과를 입증했다.

CJ제일제당은 미주, 유럽, 아태지역 등 해외 식품 매출(1조5072억원)이 10.1% 성

장하며 외형 확장을 이끌었다. 만두와 햇반 등 글로벌전략제품(GSP)을 중심으로 K-푸드 영토를 넓히는 한편, 내수 부진과 원가 부담을 극복하기 위해 제조원가 및 고정비 절감 등 수익성 개선 작업을 고삐 죄고 있다.

오리온도 해외 생산기지 구축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며 중장기 성장 기반을 다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 연결 매출 1조8239억원, 영업이익 2980억원을 기록한 오리온은 러시아 트베리 신공장동 건설(2400억원)과 베트남 다낭 물류센터 신축, 중국 셴양 및 랑팡 공장 증설을 동시에 진행 중이다. 인도 법인 생산라인 가동률이 130%를 넘어서는 등 글로벌 수요가 폭발함에 따라 신규 라인 증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유업계, 단백질·해외로 자원 재배치
저출생과 원유 공급과잉으로 극심한 내수 침체를 겪는 유업계도 효율화와 해외 진출에 사활을 걸고 있다.

매일유업은 출산율 상승에 따른 조제분유 판매 호조와 두유 등 비유가공 제품 확대, 해외 진출에 힘입어 2분기 영업이익이

64.4% 급증한 204억원을 기록했다. 매일유업은 자사 저당·고단백 음료와 콜라겐 제품 등 8종을 올리브영 미국 패서디나점 및 온라인몰에 입점시키며 미국 ‘K-웰니스’ 시장 공략을 본격화했다.

남양유업은 우유류 매출 비중을 줄이는 대신 해외 사업과 단백질 제품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개편했다.

실제로 2분기 해외 매출이 168.7% 급증한 301억원을 기록했으며, 상반기 누적 해외 매출 비중은 9.6%로 확대됐다. 단백질 브랜드 ‘데이크핏’ 매출이 76.1% 성장하는 등 고수의 포트폴리오로의 자원 재배치가 흑자 구조 정착을 견인하고 있다.

식품업계 한 관계자는 “고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 내수 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내 시장만으로는 성장의 한계가 명확하다”며 “내수 사업의 고정비와 불필요한 지출을 효율화하고, 이를 해외 생산 인프라 확충과 유통망 확보에 재투자하는 투트랙 전략이 기업들의 핵심 생존 방정식이 됐다”고 분석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롯데바이오로직스, 송도 시대 개막… “글로벌 이중 거점 전략”

전 임직원, 송도 바이오 캠퍼스 입주
내년 본격적인 상업생산 개시 목표
글로벌 물량·규제 대응 거점 확보

롯데바이오로직스가 인천 송도 바이오 캠퍼스에서 본격적인 ‘롯데 송도 바이오 시대’의 막을 올렸다. 분산되어 있던 경영 기능과 생산 시설을 하나로 결집해 의사 결정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올해 들어 연이어 성사시킨 글로벌 수주 물량을 바탕으로 수익성 반등에 총력을 기울인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전 임직원의 송도 바이오 캠퍼스 입주를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서울 잠실, 인천 송도, 1공장 부지 내 가설 사무소 등으로 나누어져 있던 각 역량을 통합한다. 경영진을 비롯해 생산, 품질, 엔지니어링, 사업개발(BD) 등 주요 조직이 바이오의약품 현장에



롯데바이오로직스, 송도 바이오 캠퍼스 제1공장 전경.

서 협업한다.

현재 송도 제1공장은 설비와 유틸리티 전반에 대한 적격성 평가(C&Q)를 진행 중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시운전과 제조-품질 시스템 검증을 통해 글로벌 규제에 부합하는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생산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 오는 2027년 본격적인 상업 생산 개시가 목표다.

특히 고객 요구사항을 생산 현장에 빠르게 반영하고 제조 및 품질 관련 이슈에도 실시간으로 대응함으로써 글로벌 고객이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운영 경쟁력을 강화한다. 미국 내 시러큐스 바이오 캠퍼스와 송도 생산 시설의 현황 공유가 실시간으로 가능한 것도 특징이다.

이번 송도 캠퍼스 일원화는 올해 들어 가속화되고 있는 글로벌 수주 물량을 안정적으로 소화하고, 글로벌 규제에 발맞추기 위한 거점 확보 차원으로 풀이된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일찍이 미국 현지 제조 시설로 시러큐스 바이오 캠퍼스를 확보했다. 올해부터는 항체·약물접합체(ADC) 위탁개발생산(CDMO) 시장에서 수주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1월 ‘JP모

건 헬스케어 콘퍼런스’에서는 일본 라쿠텐메디칼과 광면역요법 기반 두경부암 치료제의 위탁생산(CMO) 계약을 체결하며 2026년 첫 수주 포문을 열었다.

이어 지난 5월에는 영국 오토모 파마와 항체 신약 원료의약품 위탁생산 및 공정 개발을 아우르는 추가 계약을 성사시키며 단순 생산을 넘어 개발 단계까지 파트너십을 확장했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미국 시러큐스에 갖춘 ADC 원스톱 서비스, ADC 제조에 쓰이는 독자적인 링커 기술 솔루션, 송도 1공장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이중 거점’ 전략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적극적인 인프라 통합과 글로벌 수주 확대를 바탕으로 실적 개선에도 나선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2025년 연결기준 실적으로 매출 1961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16.3% 감소했다. 공장 건설과 G

MP 인증, 전문 인력 확충 등 초기 투자가 집중되면서 매출원가와 판매비가 상승한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같은 기간, 영업손실은 2024년 801억원에서 2025년 1326억원으로 손실 폭을 키웠다. 당기순손실도 2024년 897억원에서 2025년 1414억원으로 역성장했다.

롯데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송도 입주는 상업 생산을 앞둔 송도 바이오 캠퍼스에 회사의 모든 역량을 집결시키는 중요한 이정표”라며 “시러큐스에서 축적한 글로벌 생산 경험과 송도의 최첨단 생산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시장 안착과 가동률 극대화에 속도를 내고 나아가 고객에게 신뢰받는 CDMO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남은 절차를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LS일렉트릭-블룸에너지, 486억 규모 배전 솔루션 공급 계약

美 추진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 구축 사업 시스템 공급
유타·텍사스 양대 생산거점으로 대응

LS일렉트릭이 글로벌 전력기업 블룸에너지와 배전 솔루션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북미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 시장에서 기술력과 납기 경쟁력을 입증했다.

LS일렉트릭은 블룸에너지와 3425만 8500달러(약 486억원) 규모의 배전 솔루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계약에 따라 LS일렉트릭은 블룸에너지가 미국 와이오밍주에서 추진하는 대형 에너지 인프라 기업의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 구축 사업에 저압 배전반을 비롯한 주요 배전 시스템을 공급한다.

LS일렉트릭은 배전 분야의 기술력과 품질 경쟁력, 신속한 납기 대응을 바탕으로 기존 고객사인 블룸에너지로부터 추가 물량을 확보했다. 양사는 전력기저재 공급을 중심으로 전략적 협력 관계를 이어갈 계획이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LS일렉트릭은 북미 현지 공급 체계 구축과 차세대 배전 기술 개발을 병행해 왔다. 미국에서는 유타주의 ‘LS일렉트릭 유타’와 텍사스주의 ‘베스트립 캠퍼스’를 양대 생산 거점으로 두고 영업과 설계, 생산, 서비스를 아우르는 현지 완결형 밸류체인을 구축했다.

천안사업장에는 세계 최초로 직류 배전을 도입한 제조공장인 ‘직류(DC) 팩토리’를 구축했다. 이를 기반으로 DC 배전 솔

루션을 고도화해 차세대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이 같은 북미 데이터센터 사업 호조는 실적 성장으로 이어졌다. 지난 2분기 매출은 1조5770억원, 영업이익은 1785억원으로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북미 지역 매출도 약 4000억원으로 분기 최대치를 경신했으며 전체 누적 수주액은 7조원을 넘어섰다.

LS일렉트릭 관계자는 “이번 계약은 글로벌 데이터센터 전력 시장에서 LS일렉트릭의 고품질 배전 솔루션 기술력을 다시 한번 입증한 성과”라며 “블룸에너지와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현지 거점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북미 데이터센터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유럽 약국 직판모델 핵심거점으로 육성

» 1면 ‘셀트리온, 프랑스…’서 계속

아울러 셀트리온은 기존 병원·입찰 기관 중심이었던 유럽 직판망에 약국 채널을 확충해 처방부터 실제 조제·투약까지 이어지는 성장 기반을 다지게 됐다. 기존 주력 제품과 후속 신제품의 판매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자가 직접 투여하는 피하주사(SC) 제형과 유럽 내 바이오시밀러 약국 대체 조제 흐름에도 적극 대응한다. 셀트리온은 골절한 치료제 스톱보클로, 오센벨트 등 후속 파이프라인의 약국 직판을 순차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실제로 2022년부터 프랑스는 일부 바이오의약품을 대상으로 약국 대체조제를 시행해 왔다.

셀트리온은 프랑스를 유럽 약국 직판 모델의 시험대이자 핵심 거점으로 육성한 뒤 해당 모델을 다른 국가에서도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셀트리온 유럽 지역 감동식 글로벌담당장은 “지프레 인수 후 필요한 준비를 마치고 셀트리온과 함께 도약할 준비를 마쳤다”며 “프랑스 현지에서 최고경영진과 함께 정비 상황과 영업 전략을 점검한 만큼 이제는 셀트리온의 제품 경쟁력에 지프레 약국 네트워크를 더해 실질적인 성과를 만드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사 제품뿐 아니라 비경쟁 타사 제품까지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프랑스에서 검증된 약국 영업 모델을 국가별 약국 유통 구조와 바이오시밀러 대체 조제 제도에 따라 맞춤형으로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청하 기자 mlee236@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웃음 가득할 사장님의 내일에 하나가 힘이 되어드릴게요

활기 넘치는 가게를
꿈꾸는 사장님을 위해
곁에서 든든히 함께하며

하나가 사장님의 내일에
힘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 사업장 환경 개선 및 컨설팅 제공

공공배달앱 연계 소상공인 금융 지원

·공공배달앱(먹깨비) 이용 소상공인 보증한도 지원

소상공인 자금 유동성 확보 및 지원

·영세가맹점 매출대금 조기지급 프로그램 운영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핑크 |

여야 지도부, 경남 수해 현장 총출동… “주민 일상회복 지원”

김민석 “트라우마 없도록 도울것”
장동혁 “안전관리 만전 기해달라”
“신속한 복구·대책 마련” 한목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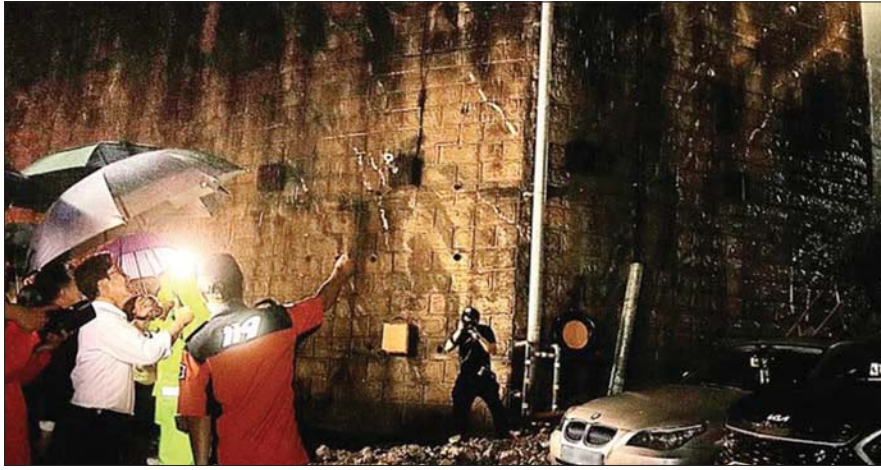
광복절 연휴 기간 동안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경상남도(경남) 지역에 여야 지도부가 잇따라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복구를 주문했다. 여야 모두 수해 지역을 방문하며 민생을 챙기는 모습이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지난 17일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신임 대표로 선출된 당일 오후 11시께 경남 거제를 방문한 바 있다.

김 대표는 피해 현장에서 관계기관으로부터 산사태 발생 경위와 피해 현황, 추가 피해 가능성 등을 확인한 후 옥포 종합사회복지관에 마련된 주민대피소를 찾아 주민들을 위로했다.

김 대표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난 자리에서도 경남의 수해 상황에 대해서 언급했다.

그는 “상상 못한 전경이 거제 아파트 수몰 현장에 펼쳐져 있었다”며 “30여 년 동안 전혀 안전에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 지역에서 생긴 산사태로 인해 토사가 쌓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가 17일 경남 거제 수해현장을 찾아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김민석 대표 페이스북

인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 국민, 주민에게 보상하고 특히 정신적인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없도록 (어떻게) 섬세하게 도와드릴 것인지 정부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 당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이날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15일부터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현장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행정 지원이 제때 투입되도록 돕겠다. 관련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고 재난

예방과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한 입법도 서두르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같은 날 예정된 일정을 취소하고 경남으로 발길을 돌렸다.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등을 포함한 당 지도부는 이날 첫 비행기로 김포공항을 출발해 경남 거제·통영을 찾아 피해 현황을 점검했다. 당초 장 대표는 이날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도식 등에 참석해 김민석 민주당 대표와 만날 계획이었다.

거제시 옥포동 아파트 산사태 피해현장을 찾은 국민의힘 지도부는 피해현장을 둘러본 후 피해 주민 임시 대피시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8일 오전 폭우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시 한 아파트를 찾아 피해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뉴스1

인 옥포초등학교에서 피해 주민들로부터 애로사항을 들었다.

장 대표는 전날(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거제, 통영, 사천을 비롯한 경남 지역에 폭우가 내려 큰 피해가 발생했다”며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 국민의힘도 신속한 복구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남 통영·고성을 지역구로 둔 정점식 원내대표 또한 이날 자신의 SNS에 “부산·경남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로 산사태와 침수 등 피해가 잇따랐다”며 “갑

작스러운 폭우로 수백여 명의 주민들이 긴급대피해 임시주거시설 또는 친척·지인 등의 집에서 머물고 있다”고 썼다.

그러면서 “부산과 경남은 최근 극한의 폭염과 가뭄에 이어 이번 집중호우까지 연이은 자연재해로 인해 지역 주민과 농어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 등 관계 당국은 추가 피해 예방과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 및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경수 수습기자

gws0325@metroseoul.co.kr



metro

김민석 신임 與 대표, ‘민생·당정 소통’ 강조

민주당 대표 취임 이틀째 현충원 참배
청와대와 소통하며 민생 중심 당 운영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 대표가 18일 강훈식 비서실장과 홍익표 정무수석을 만나 민생 현안에 주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국립현충원과 효창공원 임시정부 요인 묘역을 찾아 참배하는 등 취임 2일차 공식 일정을 소화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강훈식 대통령비서실 비서실장과 홍익표 정무수석을 접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보낸 축하난을 전달받았다. 김 대표는 “어제 제가 당대표로 되고 나서 첫 감사 인사에서 앞으로 당이 ABC 플랜(민생 우선·확장 정책·유능함)을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대통령님이 강조하는 안전(Security)가 중요해서 ABC하고 S를 합치고 순서를 바꾸면 택시(CABS)가 돼서 민주당은 앞으로 속도감 있게 새벽부터 달리는 민생 택시가 되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당은 앞으로 정부와 대통령님의



김민석(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 비서실장이 18일 여의도 국회에서 포옹하고 있다. /뉴스1

국정 방향을 잘 뒷받침하면서 당은 민생의 촉수를 펼치고 새벽부터 전국을 돌면서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민심을 청와대나 정부에 전달도 하고 토론회 하면서 당정 또 국정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비서실장은 “민생과 경제를 더욱 세

심히게 살피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일까지 당과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하나하나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면서 “특히 당은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민심을 듣는 곳이다. 정부가 미처 듣지 못한 목소리 또 놓치고 있는 현장의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가감 없이 말씀해 주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오는 23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회에선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접견을 마친 김 대표는 최민희·박선원·서미화·이성운·한민수 최고위원, 한병도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함께 국립현충원으로 이동해 헌종탑에 참배했다. 김 대표는 헌종탑 방명록에 ‘민주당이 대한민국 황금시대 기관차가 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李, 왕이 中 외교부장 만나 한중관계 논의

5년 만에 방한… 내일 접견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0일 청와대에서 왕이(王毅)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을 접견한다. 왕 부장은 오는 19~20일 조현 외교부 장관의 초청에 따라 공식 방한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대통령은 한중관계 발전 방향 및 역대 정세 등에 대해 평가하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안부를 전할 예정”이라

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같은 날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을 겸한 왕 부장과 회담 및 오찬을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한중관계, 한반도 정세를 비롯한 지역 및 국제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한편 왕이 외교부장은 오는 19~20일 방한해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논의한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왕 부장이

조현 장관의 초청으로 공식 방한한다는 사실을 전했다.

양 장관은 19일 한중 외교장관회담과 공식 만찬을 통해 양국 관계, 한반도 정세와 지역 및 국제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앞서 왕이 외교부장은 지난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당시 시 주석을 수행해 방한했으며, 양자 외교장관 회담을 위해 한국을 찾은 것은 2021년 9월 이후 약 5년 만이다. 또 한중 외교장관회담은 지난해 9월 베이징에서 열린 이후 11개월여 만에 열리는 것이다.

/서예진 기자 syj@

공공주택지구, 그린벨트 해제총량 규제 제외

정부, 국무회의서 의결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정부가 서민주택 공급을 위해 추진하는 대규모 공공주택지구(대해 그린벨트 해제 총량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안건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을지1및 제36차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 예외인정을 위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선정안’을 포함한 일반안건 5건과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32건이 심의·의결됐다.

이번에 의결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선정안은 정부가 지난 1월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 따라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이다.

수사·기소 분리 후속 조치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관련 법령 3건도 함께 의결됐다. ‘중수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은 중수청장을 후보추천위원회 추천과 행정안전부장관 제청,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다른 수사기관이 일정 범위를 인지하면 즉시 중수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이 수사의 적정성·적법성을 심의받을 수 있는 ‘수사심’의 신청 제도도 마련됐다.

‘중수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안’은 검찰청 폐지와 법무부 소속 공소청,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따른 조직과 직무범위, 정원 등을 규정했다. ‘중수청수사관 임용령안’은 수사관 채용과 승진, 징계 절차 등 인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이들 법령은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출범하

는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제주4·3사건 관련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됐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2023년 6월 30일 신고기간이 만료된 희생자·유족의 신고를 내년 2월부터 7월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가족관계 등록부 작성·정정 및 보상 신청기간을 연장했고, 희생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나 양자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의 혼인·입양신고 신청기간도 연장했다.

농지 관리 제도를 정비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소유자가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 매수를 청구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가 해당 농지를 매수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농촌특화지구 내 농지에 대한 농지전용허가 특례도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지법 위반 신고·고발에 대한 포상금 지급 상한액을 상향하고, 지급 기준과 지급 사유·예외 사유도 함께 정비했다.

콘서트·스포츠 경기 양표 근절을 위한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입장권 판매자에게 부정구매·부정판매 방지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신고 접수·처리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부정판매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과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도 마련됐다.

복권기금 배분 방식을 바꾸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그동안 지자체와 8개 기금에 무조건 35%씩 나눠 주던 방식을 없애고, 2031년부터는 지자체 몫을 12.086%로 줄이는 대신 나머지 기금은 사업 성과 평가에 따라 차등 배분하도록 했다.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과도기를 뒤 기존 방식을 유지하면서도, 성과에 따라 배분율을 최대 40%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뉴스1

먼 우주의 통신사업부터

데이터센터

깊은 바다 속 해저케이블까지

대한민국을 하나로 이어온 KT

이제 우리의 인프라 위에
국가, 산업, 일상에 꼭 맞는 AX 서비스를 더해
대한민국을 AI 3대 강국으로 이끌겠습니다

AX Platform Company **kt**

향후 5년, KT의 인프라 전략투자 추진

- AI데이터센터 | '안산DC' 등 실수요 맞춤형 AI 데이터센터 20여개 신설 & 1GW 전력 인프라 추가 확보
- 해저케이블 | 90Tbps 이상 초대용량 해저케이블 확충을 통한 글로벌 연결성 강화

중금리 대출 늘렸더니 건전성 악화 인터넷전문은행 ‘포용금융’ 딜레마

케이·카카오·토스 인뱅 3사
1분기 중·저신용자 대출비중
당국제시 목표치 30% 넘어서
고정이하여신 비율 동반 상승세
“우량 중·저신용자 선별, 위험 낮춰야”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확대되면서 건전성 관리에도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포용금융 확대 차원에서 중·저신용자 대출을 늘리고 있지만 고정이하여신(NPL)비율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거나 오히려 상승하고 있어서다. 수익성과 건전성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딜레마가 커지는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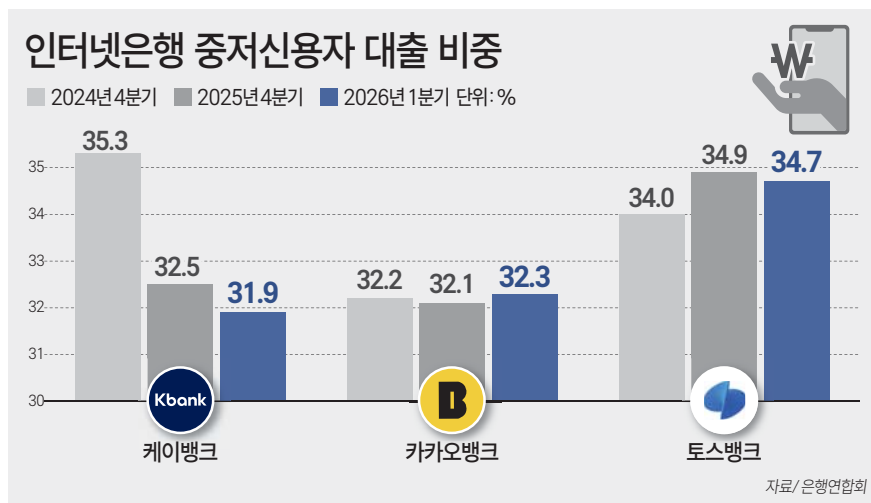
고정이하여신은 은행 등 금융기관이 취급한 여신 가운데 3개월 이상 연체되는 등 회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부실채권을 말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의 2분기 고정이하여신 잔액은 1161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71억원(30.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총여신 증가율인 13.9%를 두 배 이상 웃도는 수준이다.

고정이하여신비율도 지난해 2분기 0.51%에서 올해 2분기 0.59%로 0.08%포인트(p) 상승했다. 직전 분기와 비교해도 고정이하여신 잔액은 1082억원에서 7.3% 늘었고, 비율 역시 0.58%에서 0.59%로 올랐다.

카카오뱅크도 부실채권 규모가 늘어나는 흐름을 보였다. 지난 6월 말 고정이하여신 잔액은 2564억원으로 전년 동기 2401억원보다 163억원(6.8%) 증가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54%로 전년 동기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총여신이 44



조8000억원에서 48조2000억원으로 7.6% 증가하면서 이른바 ‘분모 효과’로 비율 상승을 막았지만, 부실채권의 절대 규모는 오히려 커졌다. 직전 분기와 비교하면 고정이하여신비율도 0.53%에서 0.54%로 상승했다.

문제는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도 동시에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인터넷은행 3사의 중저신용자(KCB 신용평점 하위 50%) 대상 신용대출 비중 목표를 올해 30% 이상으로 설정하고 2028년까지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인터넷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은 케이뱅크 31.9%, 카카오뱅크 32.3%, 토스뱅크 34.7%를 기록했다. 세 은행 모두 당국이 제시한 올해 목표치인 30%를 이미 넘어선 상태다.

향후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추가로 확대해야 하는 만큼 인터넷은행의 건전성 관리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차주에 대한 대출이

늘어날수록 경기 둔화나 금리 상승 등 외부 충격이 발생했을 때 연체와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터넷은행은 시중은행과 달리 가게 신용대출 비중이 높아 취약차주의 상환 여건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이라는 정책적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고정이하여신과 연체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과제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자체보다는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교하게 평가할 수 있는 신용평가모형 고도화와 선제적인 건전성 관리가 관건이라는 설명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 공급을 단순히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우량 중·저신용자를 선별해 부실 위험을 낮춰야 한다”며 “수익성과 포용금융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핵심이다”라고 말했다. /나우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metro

서울 집값 1.09% ↑… 9개월 만에 최대폭

자치구별 성북구 1.73% 최대 상승 이어 노원구 1.64%, 중랑구 1.35%

서울 집값이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서울 전역이 오른 가운데 전세와 월세 가격도 상승세가 이어졌다.

1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서울 주택종합(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1.09% 올랐다. 전월(1.03%) 대비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작년 10월(1.19%)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높다.

서울의 월간 집값 상승률은 올해 3월 0.39%를 저점으로 ▲4월 0.55% ▲5월 0.90% ▲6월 1.03% ▲7월 1.09% 등 9달 연속 확대됐다.

부동산원은 “서울은 관광 분위기가 확대되는 가운데 개발 기대감이 있는 지역과 정주여건이 양호한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 계약이 체결되며 전체적으로 올랐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는 성북구의 상승률이 1.73%로 가장 높았으며 ▲노원구 1.64% ▲중랑구 1.35% ▲구로구 1.3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강남구와 서초구는 각각 0.56%, 0.50% 올라 전월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서울의 주택 매매가격은 평균 10억 2364만원이며, 중위가격은 서울 7억9519만원이다. 지난달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35% 올랐으며, 수도권 기준으로는 0.72% 상승했다.

서울은 전월세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서울의 주택종합 평균 전세가격지수와 월세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각각 1.03%, 0.94% 올랐다.

자치구별로는 전세와 월세 모두 노원구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으며, 성북구와 강동구, 송파구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서울 평균 전세가격은 4억9040만원, 월세가격은 130만원으로 조사됐다.

/안상미 기자 smahn1@

푸본현대, 상반기 당기순익 1586억 기록

신계약 CSM 확보 등 본업 성과

푸본현대생명이 올해 상반기 1586억원의 당기순익을 기록했다. 자산운용 부분의 투자손익 개선이 실적을 견인한 가운데, 보장성 보험 중심의 상품 포트폴리오 강화와 판매채널 다변화를 통해 보험 본업의 수익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푸본현대생명의 2026년 상반기 순이익은 1586억원으로, 신계약을 통한 보험계약 마진(CSM) 확보 등 의미 있는 경영성과를 이뤘다.

자산운용 부문 성과에 더해 지난 3년간의 체질개선을 통해 상품 포트폴리오와 영업 채널을 재정비하고, 자산운용 역량을 강화하면서 지속 가능한 수익 창출 기

반을 구축한 결과다.

특히 최근 출시한 ‘세븐하이픽 애플러스’ 판매 확대 등을 통해 보장성상품 중심의 상품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푸본현대생명의 상반기 CSM은 원수 보험 기준 1788억원이다. 신계약을 통한 CSM 확보가 확대되는 흐름을 보였다.

올 상반기 신계약에 따른 CSM 증가 효과는 703억원으로 전년 동기(512억원) 대비 약 37% 증가했다.

푸본현대생명은 보장성보험 중심의 상품 포트폴리오 강화와 판매채널 다변화를 지속하고, 시장 및 제도 변화에 대응한 자산운용과 리스크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주형 기자 gh471@

상반기 실적 선방… 영업정지 충격 제한적

롯데카드, 상반기 순익 56% 증가
영업비용 4.5% ↓ 비용 효율화 주요
하반기 1.5개월 신규 카드업무 중지
이자수익 등 본업 수익으로 ‘방어’

롯데카드가 하반기 영업정지 부담을 완충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단기적인 재무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회원 이탈과 영업 정상화 이후 마케팅비 확대, 법적 리스크 등이 핵심 변수로 부각되고 있다.

18일 공시 자료에 따르면 롯데카드는 상반기에 647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55.5%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957억원으로 같은 기간 76.5% 늘었다. 비용 효율화가 주효했다. 같은 기간 영업비용은 1조5544억원에서 1조4851억원으로 4.5% 감소했다. 영업수익은 1조6085억원에서 1조5808억원으로 1.7% 줄었다. 수익 감소 폭보다 비용을 2.5배 이상 크게 줄이며 수익성을 방어했다.

◆ 단기 영업정지 파장은?

상반기 실적 선방에 따라 하반기 영업정지로 인한 재무 충격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앞서 롯데카드는 지난해 말 발생한 고객정보유출 사고로 인해 금융당국으로부터 1.5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달부터 내달 15일까지 신규 회원 대상 카

드 업무가 중지된다.

기존 회원 기반의 이자·수수료 등 본업 수익은 안정적이다. 실제 롯데카드 상반기 영업수익은 소폭 감소했으나 그중 본업 영업인 카드수익은 증가했다. 카드수익은 약 2430억원으로 작년 2289억원보다 약 141억원(6.2%) 확대됐다.

특히, 해외 이용액 증가에 따른 국제거래수수료(+61억원), 프리미엄 상품 라인 확대에 따른 연회비(+53억원), 가맹점수수료(+39억원) 등이 본업 성장을 견인했다.

비용 측면에서도 단기 수익성 방어 가능하다는 평가다. 오히려 영업정지 기간 신규 회원 영업이 전면 중단되면 모집수당과 발급비, 프로모션 등 마케팅 비용이 줄어들어 영업수익 공백을 상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반기 롯데카드 판매사업비는 약 3007억원으로, 전년 동기(2731억원)보다 10.11% 늘었다. 신규 모집 중단에 따라 전체 판매사업비 중 모집비용과 심사발급비 등 고객 유치 비용이 일부 줄어들면, 상반기 늘어났던 판매비 부담을 덜어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 회원 이탈·마케팅비 재확대·법적 리스크 등 변수

다만, 변수는 기존 회원 이탈과 향후

영업 재개 시점의 마케팅비 급증 가능성이다.

김석우 나이스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이번 1.5개월 영업정지 영향으로 회사의 개인 실질 회원 수와 총 카드 이용 실적 점유율은 전년 대비 일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저하된 시장지위 회복을 위한 경비 부담 확대가 나타날 경우 수익성에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법적 리스크 역시 부정적 요인이다. 롯데카드는 개인정보유출 사고와 관련해 지난 6월 말 기준 총 13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휘말려 있다. 총 소송가액은 약 37억원이다.

향후 동일한 이슈로 추가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열려 있어 롯데카드가 부담해야 할 최종 손해배상 규모는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영업정지 종료 이후 영업 채널을 다각화하고 고객 소비 패턴과 수요를 반영한 신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여 고객 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동시에 선제적인 자산건전성 관리와 조달 구조 다변화, 비용 효율화를 지속해 중장기적인 수익성 회복과 사업 체질 개선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대우건설 ‘대우네 뿌듯트럭’이 에코델타시티 푸르지오 트레파크 현장을 방문했다.

/대우건설

대우건설, 현장에 ‘대우네 뿌듯트럭’ 간식차

대우건설은 국내 건설현장에 간식차를 보내는 프로그램 ‘대우네 뿌듯트럭 시즌 4’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대우네 뿌듯트럭’은 현장에서 소통하고 협업한 사례를 담은 영상을 선정해 간식차를 지원하는 행사다. 지난 2024년 처음 시작했다.

올해는 소통과 업무·환경 개선, 사내 소모임 활성화 등 조직문화를 개선한 사례와 아이디어를 담은 60초 이내 영상을 공모했다.

심사를 거쳐 ▲진해신항 투기장 호안 2공구 ▲블랑썬 74 ▲용인 푸르지오 윈

클러스터 2·3단지 ▲에코델타시티 푸르지오 트레파크 ▲그랑 르피에르 등 국내 현장 5곳이 선정됐다.

현장 임직원들은 소통과 안전관리 강화, 온열질환 예방수칙 준수 등의 내용을 영상에 담았다. 퇴근 후 소모임 등 팀워크 활동도 소개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현장 임직원과 근로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긍정적인 조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국내외 현장 임직원이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성채리 수습기자 cr56@

韓-日 철강산업 통상장벽 여전 관세 부과 등 공급망 협력 한계

업황 침체에 자국 시장방어 집중
반덤핑 조사 등 고율관세 이어져
국내 업계 “불합리한 근거 반박”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과 수요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한국과 일본이 자국 시장 방어에 나서고 있다. 지난 3월 공급망 협력을 약속했지만 이후 신규 반덤핑 조사가 시작되고 기존 조사도 고율 관세로 이어지는 등 철강 통상장벽은 낮아지지 않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과 경제산업성은 지난 6월 한국·중국·대만산 열연·냉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일본 철강업계는 해당 제품이 정상가보다 최대 50% 낮게 수입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협약 이전부터 진행되던 조사도 실제 관세로 이어졌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조사해온 한국산 용융아연도금강판 및 강대에 지난 8일부터 오는 12월 7일까지 29.2~38.0%의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업체별로 포스코 29.2%, 동국씨엠·세아씨엠 30.6%, 현대제철 38.0%다.

용융아연도금강판은 주택 전자재 등에 쓰이는 고내식성 제품으로 대일 수출은 연간 30만~40만t, 약 3000억원 규모다. 한국에서도 기존 반덤핑 절차가 실제 관세 부과로 이어졌다. 지난 6월 일본·중국산 열연에 28.16~33.43%의 덤핑방지 관세를 5년간 부과하기로 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양국이 공급망 협력을 약속한 지 불과 수개월 만에 나타났다. 한국과 일본은 지난 3월 14일 도쿄에서 한일 공급망 파트너십(SCPA)을 체결해 공급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정부 조치를 자제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협의하기로 했다. 공급망 교란 발생 시 5일 이내 긴급회의를 여는 내용도 담았다. 당시에도 양국 간 철강 반덤핑 절차가 진행 중이었던 만큼 협약 이후 추가 통상제재가 자제될 것이라 기대가 나왔다.

양국이 협력 기조 속에서도 시장 방어에 나서는 배경에는 구조적 공급과잉이 있다는 분석이다. OECD는 세계 철강과 잉생산능력이 지난해 6억4000만t에서 2028년 7억4500만t으로 1억500만t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세계 철강수요 증가율은 연평균 0.9% 수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대외 장벽과 내수 부진도 겹쳤다. 미국은 한국산 철강에 50% 관세를 부과하고 EU도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철강 수요의 약 40%를 차지하는 건설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현대제철과 포스코 별도의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각각 43.3%, 46.6% 감소했다.

실제 반덤핑에 따른 수입 방어 효과도 나타났다. 현대제철이 지난 2024년 말 반덤핑 제소에 나선 이후 지난해 열연 수입은 254만4000t으로 전년보다 22.5% 감소한 반면 국산 열연 판매는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내 철강업계는 일본의 도금강판 최종 판정이 나오는 12월까지 대응에 집중할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일본 당국이 예비 판정에서 마진율 산출 시 과도한 재량권을 행사해 높은 관세율이 나왔다”며 “12월 최종 판정 전까지 WTO 반덤핑 협정과 판례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근거를 반박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관세율이 조정되도록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dhale@metroseoul.co.kr



metro



토요타 올 뉴 RAV4.

‘고장 없는 차’ 넘어 주행 강자로



토요타 ‘라브 4’

탄탄한 기본기 바탕 강력한 추가
주행성능·충전 등 높은 완성도 갖춰

전 세계에서 인기 있는 차량은 어느 것 하나 부족하거나 튀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매력을 갖추고 있다. 바로 1994년 처음 출시된 이후 2025년까지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 약 1500만대가 판매된 토요타 인기 준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라브 4가 주인공이다.

지난 6월 16일 6세대 모델로 돌아온 라브 4는 이전 세대와 동일하게 하이브리드(HEV)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두 가지 트림으로 출시 됐다. 출시 이후 꾸준히 판매량을 늘려가며 차량의 매력을 입증하고 있다. 라브 4 HEV 모델의 7월 판매량은 987대를 기록했으며 PHEV 모델은 287대가 판매됐다. 두 달 동안 라브 4의 국내 누적 판매량은 1274대를 기록하며 토요타코리아의 하반기 판매를 견인할 모델임을 확인시켰다. 신형 라브 4는 화려한 첨단 기능보다 탄탄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고장 없는 차’의 매력과 함께 ‘강력함’까지 추가됐다.

신형 라브 4에서 주목할 점은 세 가지다. 첫 번째는 5세대 모델과 비교해 한층 강력해진 주행성능이다. 이전 모델의 경우 주행 중 급가속을 하거나 고속도로에서 가속시 ‘힘겹다’는 느낌이 강했다면 이번 모델은 가벼운 가속력을 느낄 수 있다.

특히 PHEV GR SPORT의 가속 성능

은 대단했다. 가속페달에 힘을 주자 순식간에 시속 100km 넘는 속도까지 부드럽게 치고 올라갔다. 핸들링 역시 섬세한 움직임까지 포착하며 기민하게 반응했다.

PHEV XSE 모델 역시 GR SPORT 수준의 민첩한 반응을 보였다. 고속 주행을 할 때도 엔진 소음과 진동을 억제해 높은 정숙성을 유지했다. PHEV 모델은 22.68 kWh(킬로와트시)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했다. 시스템 총출력은 329마력으로 사륜구동 시스템을 갖춰 탄탄한 주행감을 구현한다.

두 번째 매력은 경제성이다. 서울 여의도를 출발해 경기도 양평까지 왕복 약 200km 구간을 주행한 결과 복합 연비(15.3km/L)를 훌쩍 뛰어넘는 24.3km/L를 기록했다. 1회 충전시 배터리만으로 갈 수 있는 거리가 기존 63km에서 77km까지 늘어나면서 서울, 경기 출퇴근 직장인의 부담을 최소화한다. PHEV의 가장 큰 특징은 순수 전기차처럼 외부 충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50kW CCS1 급속 충전 규격을 지원하며 상온 기준 35분 만에 10%에서 80%까지 충전된다.

마지막은 안정적인 승차감이다. 토요타의 상위 브랜드인 렉서스처럼 느낄 수 있는 묵직한 주행 성능을 경험할 수 있다. WRC와 내구레이스를 통해 한단계 성장한 토요타의 서스펜션 기술이 라브 4를 통해 완벽하게 구현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라브 4는 유행보다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는 높은 완성도를 갖춘 차다. 시기적으로 전기차 충전 등의 문제로 구매를 망설이는 소비자라면 라브 4를 구매하는 것도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양성운 기자 ysw@

김운 삼양그룹 회장 “글로벌·스페셜티 중심 사업 확장”

‘2026 삼양 커넥트’

상반기 화학사업 중심 수익성 개선
AX 내재화 등 핵심 경영과제 제시

김운 삼양그룹 회장이 글로벌 스페셜티 중심의 사업 구조 전환과 인공지능 전환(AX) 내재화를 하반기 핵심 경영 과제로 제시했다. 지정학적 위험과 공급망 위기, 기업 간 AI 격차 심화 등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해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업무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삼양그룹은 18일 경기 성남시 판교 삼양디스커버리센터 삼양홀에서 ‘2026년 삼양 커넥트(SAMYANG CONNECT)’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삼양 커넥트는 김 회장이 임직원들과 상반기 경영성과와 하반기 전략을 공유하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상·하반기 한 차례씩 개최하는 사내 행사다.

김 회장은 “올해 상반기는 화학사업의 주요 제품 스프레드가 개선되며 그룹 전



김운 회장이 18일 판교 삼양디스커버리센터에서 개최한 ‘2026년 삼양 커넥트(SAMYANG CONNECT)’에서 직원들에게 상반기 경영 성과와 하반기 전략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삼양그룹

체 실적을 견인했다”며 “반도체와 이온교환수지 등 스페셜티 소재 사업의 수익성도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일본 향료기업 소다아로마틱 인수와 삼양엔씨켄의 상반기 실적 확대, 그룹 자체 AI 플랫폼 ‘SAMI 2.0’ 오픈도 주요 성과로 꼽았다. 김 회장은 글로벌과 스페셜티, AX 등 3대 핵심 성장 분야를 중심으로 의

미 있는 성과를 창출했다고 강조했다.

하반기 경영환경의 주요 변수로는 지정학적 위험과 공급망 위기, K자형 경기 양극화의 고착화, 기업 간 AI 격차 심화를 제시했다. 특히 기술 혁신을 빠르게 사업화하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의 격차가 커지고 있는 만큼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글로벌·스페셜티 중심의 사업 포트폴리오 고도화와 현금흐름 중심 경영, AI 트랜스포메이션 내재화 등 그룹의 3대 경영방침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임직원 모두가 경영방침을 되새겨 업무에 적용하고 열린 시각을 바탕으로 그룹이 글로벌 스페셜티 기업으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아이디어를 주저 없이 제안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에도 뜨거운 도전정신과 치열한 실행력, 정직과 신뢰의 정도경영을 바탕으로 올해 목표한 바를 반드시 이뤄내자”고 당부했다.

/원관희 기자 wkh@

에쓰오일, 국내 석화산업 체질개선 ‘앞장’

샤힌 프로젝트 기반 경쟁력 강화

에쓰오일(S-OIL)이 대규모 석유화학 설비 투자사업인 샤힌 프로젝트를 앞세워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체질 개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에쓰오일은 TC2C 신기술과 고효율 설비를 적용한 샤힌 프로젝트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원가·에너지 경쟁력을 높이고 원료 조달 안정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샤힌 프로젝트의 핵심은 원유와 정유 공정에서 발생하는 저부가가치 유분을 석유화학 원료로 전환하는 TC2C(Thermal Crude to Chemicals) 기술이다. 이 기술이 상업 설비에 적용되는 것은 세계 최초다.

에쓰오일은 여기에 고효율 스팀크래커와 발전설비, 폐열 회수 및 공정 최적화 기술을 결합해 원료와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였다. 추가적인 설계 개선을 통해 탄소 배출량도 최초 설계안보다 20% 이상

감축할 수 있도록 했다.

다양한 원료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샤힌 프로젝트의 강점으로 꼽힌다. 특정 원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시장 상황에 따라 원료 구성을 조정할 수 있어 가격과 수급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정유·석유화학 통합 생산체계를 기반으로 공급망 충격에 따른 원료 조달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에쓰오일은 보고 있다.

샤힌 프로젝트 가동 이후 생산되는 에틸렌과 프로필렌 등 기초유분 가운데 외부 공급 물량은 지선 배관망을 통해 울산 국가산업단지 내 다운스트림 업체에 공급될 예정이다.

/원관희 기자 wkh@

KGM, 미얀마 진출… 토레스 EVX 등 판매

베트남 등 반조립제품 사업 확대

KGM모빌리티(이하 KGM)가 미얀마에서 토레스 EVX와 무쏘 EV의 현지 생산·판매에 나선다. 미얀마를 시작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베트남 등으로 반조립제품(KD) 사업을 확대하며 수출 물량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KGM은 지난 14일(현지 시간) 미얀마 양곤에서 열린 행사에 KGM 객재선 회장과 객정현 사장, 미얀마 SSS(Super Seven Stars) 그룹 산 린 회장과 살만 린 사장(자동차 대표)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기자단, 고객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고 18일 밝혔다.

KGM은 이번 행사에서 미얀마 시장에 처음으로 KGM 브랜드를 론칭하고 토레스 EVX와 무쏘 EV 등 전기차 라인업을 소개했다.



SSS그룹 살만 린 사장(왼쪽부터), 산 린 회장, KGM 객재선 회장, 객정현 사장이 지난 14일(현지 시간) 양사 협력을 통한 브랜드 론칭을 기념해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KGM 객재선 회장은 “KGM은 미얀마 고객들이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자동차 브랜드,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자동차 회사로 기억될 수 있도록 SSS 그룹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미얀마 시장에서 함께 성장,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맞춤형 로봇 플랫폼으로 코스닥 도전… 피지컬 AI 시장 공략

혁신기업 돋보기

브릴스

프로젝트 1295건 수행·기술력 축적
지식재산권 186건·500건 확보 목표
최근 3년 매출 연평균 23% 성장
지난해 영업이익률 10% 기록
15개국 진출·북미 수주 210억
내달 상장·공모자금 AI 고도화 투입

“전세계 모든 로봇을, 모든 수요기업들에 맞춰 최적화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경쟁력이야 차별점이다.”

브릴스가 내달 코스닥 상장을 통해 피지컬 AI 기반 지능형 로봇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을 시도한다.

전진 브릴스 대표는 18일 “브릴스의 플랫폼 아키텍처는 레고 블록과 같다”면서 “다양한 기술 모듈을 조합해 고객 맞춤형 솔루션을 구현할 수 있으며 피지컬 AI시대 본격화될 수록 기업의 제2전 주기를 지능화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브릴스 전진 대표가 회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브릴스

전 대표가 말하는 ‘레고 블록’이란 로봇 하드웨어와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조합으로 모듈화를 통해 폭넓은 호환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협동로봇, 산업용 로봇 등 브릴스 자체 하드웨어에 자동차 전장 통합 검사 로봇, 박스 팔레타이징 로봇 기술, 고정밀 검사 시스템 기술 등 온디바이스·피지컬 AI 기술을 얹어 ▲물류 로봇 솔루션 ▲제조 로

봇 솔루션 ▲식품 가공 로봇 솔루션 ▲고정밀 검사 로봇 솔루션 등 여러 산업 분야에 최적화한 로봇 모듈화 플랫폼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브릴스의 핵심 사업 분야다.

전 대표는 “브릴스의 성장 구조는 단순한 프로젝트 수주 모델이 아니다. 로봇 하드웨어와 요소 기술 모듈이 플랫폼 자산으로 축적되고, 이를 기반으로 산업별 솔루션이 확대되면서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

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학과 대학원에서 메카트로닉스공학, 제조인공지능학을 접한 전 대표는 2015년에 브릴스를 창업했다. 회사는 자동차, 이차전지, 반도체 등 다양한 현장의 로봇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자체 하드웨어 기술 뿐만 아니라 데이터, 플랫폼 등 수 많은 노하우를 쌓아왔다. 2020년부터 2025년 사이 진행한 프로젝트만 1295건에 이른다. 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만 186건이다. 중소기업으로는 드물게 회사에 ‘특허부’까지 별도로 뒀다.

전 대표는 “2030년까지 500건의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는게 목표”라며 “경쟁사들이 기술을 카피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기술장벽을 계속 높여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차별화한 사업 전략을 바탕으로 브릴스는 안정적으로 확장하며 지난 2023년부터 2025년 사이 매출은 157억→187억→238억원으로 3개년 평균 23% 성장하는 기업을 토론했다. 지난해의 경우 영업이익률이 10%를 달성하기도 했다. 그 사이 글로벌 진출국만 15개국으로 늘었다.

해외시장을 더욱 공략하기위해 미국 미시간주에 거점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미국, 멕시코 등 북미와 유럽 시장 추가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북미지역 누적 수주액만 현재 210억원 가량에 이른다.

전 대표는 “국내에서 검증된 로봇 모듈화 플랫폼 솔루션을 현지 거점과 파트너십을 통해 전 세계로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브릴스는 오는 9월 17일 증권시장 상장을 예정하고 있다. 상장에선 120만주를 공모한다. 희망 공모가 범위는 1만6500~1만9500원으로, 공모 예정금액은 약 198억~234억원이다.

전 대표는 “상장을 통해 확보한 공모자금은 피지컬 AI 및 온디바이스 AI 기술 고도화, AX 기반 신규 솔루션 개발, 해외 영업망 확대, 생산·운영 인프라 확충 등에 투입할 계획”이라며 “상장을 계기로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사업을 확장해 K-로봇을 대표하는 글로벌 로봇 플랫폼 기업으로 탈바꿈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metro

경남 수해 전통시장 복구·금융지원 총력

중기부, 경남 17개 시장 피해 현장 점검
정책자금 최대 1억·복구보증 3억 지원
전기·가스시설 복구 패스트트랙 적용

중소벤처기업부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남지역 전통시장의 복구와 상인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총력 지원에 나섰다. 중기부는 이병권 제2차관이 경남 거제 고현시장, 통영 서호시장을 잇따라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고 18일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집중호우로 현재까지 경남지역 17개 시장(경남 통영 3개 시장, 거제 14개 시장)에서 침수 및 토사 유출로 점포 피해 등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부는 피해현황과 복구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피해 상인에 대한 지원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오른쪽 두번째)이 18일 경상남도 거제 고현시장을 방문해 수해 피해 상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중기부

단 등 관계기관과 대응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다.

침수로 인한 전기·가스 등의 안전사고를 추가 예방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 등에 안전점검을 요청하고, 침수가 발생한 전통시장의 전기·가스시설 복구 지원도 지원할 계획이다.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한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재해확인서 발급 등 지원), 피해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정부 정책자금과 보증 등 금융지원도 추진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재해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 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지역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지자체로부터 재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억원 한도 내에서 재해복구에 필요한 보증을 지원한다. 보증비율은 일반보증의 85% 보다 크게 상향된 100%를 적용하고, 보증료도 0.5%(고정)로 우대한다.

복구 또는 교체가 필요한 전기·가스시설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하루 빨리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김승호 기자

스마트링 원조 오우라 韓 상륙… 갤럭시 링과 정면승부

오는 25일 ‘오우라 링 5’ 국내 선배
가격 63만~78만원·최대 7일 사용
수면·스트레스 등 개인 건강 분석 강점

글로벌 스마트링 시장 선두주자인 핀란드 헬스테크 기업 오우라가 한국 시장에 진출한다. 오우라는 10년 넘게 축적한 센싱 기술과 건강 데이터 분석 역량을 앞세워 국내 시장 공략에 나선다. 특히 삼성전자가 지난 2024년 갤럭시 링을 출시한 데 이어 오우라까지 가세하면서 국내 스마트링 시장의 경쟁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18일 오우라는 서울 롯데월드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우라 링 5’를 오는 25일 국내 출시한다고 밝혔다. 가격은 63만~78만원이다.

2013년 설립된 오우라는 스마트링 시

장을 개척한 업체다. 현재 150개국에 회원 을 두고 전 세계 4000여개 매장에서 제품을 판매하며 지난해 매출은 10억달러(약 1조4000억원)를 넘어섰다. 연구기관과의료기관에서도 오우라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수면·스트레스 분석… 여성 건강까지
오우라의 강점은 장시간 축적한 생체 정보를 개인별 건강 분석으로 연결하는 데 있다. 반지 형태로 착용 부담을 낮춘 덕분에 이용자의 하루 평균 착용 시간은 23시간에 달한다. 손가락 동맥에서 손목보다 강한 맥박 신호를 확보할 수 있어 심박수와 심박변이도(HRV·심장 박동 간격의 변화) 등도 안정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신제품은 너비 6.09mm, 두께 2.27mm로

크기를 줄였다. 고출력 LED와 12개 신호 경로를 적용해 작은 크기에서도 센싱 성능을 유지했으며 한번 충전하면 최대 7일 사용할 수 있다.

◆갤럭시 링과 경쟁… 한국 공략 본격화
오우라는 국내에서 삼성전자의 갤럭시 링과 경쟁한다. 오우라는 센싱 정확도와 개인화된 건강 분석, iOS·안드로이드 지원을 강점으로 내세운다. 반면 갤럭시 링은 삼성 헬스를 기반으로 갤럭시 기기와 연동되는 생태계를 갖췄다.

조지 애벗 오우라 유럽·중동·아프리카 및 아시아태평양 총괄은 “스마트링 카테고리 만들기도 오우라이고 시장을 이끌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데이터를 행동할 수 있는 인사이트로 바꾸는 데 투자해 왔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K-컬렉션 LA 흥행에 中 小수출성과 확대

대중기협력재단, 中 小 40곳 참가 지원
리센스 부스 방문해 제품 홍보·팬 소통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LA 컨벤션센터에서 진행한 ‘K-COLLECTION with KCON LA 2026’ (K-컬렉션)에 14만2000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가는 등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18일 대중기협력재단에 따르면 이번 K-컬렉션에는 뷰티, 라이프스타일, 푸드 분야 중소기업 40개사가 참가해 현장 판촉전과 수출상담회를 진행했다.

행사 기간 참가 기업들은 7만2000달러(한화 약 1억 원) 어치의 현장 판매 실적을 기록했다. 함께 열린 수출상담회에서 미국 현지 유통망·벤더사 77개사가 참여해 193건 이상의 1대1 수출상담이 이뤄졌으며, 총 800만 달러(한화 약 113억원) 규모의 수

출 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판촉전에선 K컬렉션 공식 아티스트 ‘리센스(RESCENE)’가 참가기업 부스를 직접 방문해 제품을 소개하고 관람객들과 소통하며 현장에 활기를 더했다. 사전 SNS 콘텐츠와 연계한 홍보 활동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참가기업 제품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며 국내 중소기업 제품의 매력을 글로벌 팬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렸다.

대중기협력재단은 이번 K컬렉션의 성과가 지속적인 해외 판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온라인 판매 지원도 계속할 예정이다. 지난 7일 문을 연 공식 온라인 기획몰을 중심으로 SNS-K-POP 커뮤니티 마케팅과 인플루언서 리뷰 콘텐츠 등을 추진해 현장에서 확인한 소비자의 관심과 구매 열기를 온라인 판매와 수출 성과로 이어갈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中 노선 여객 22% ↑… LCC 증편 경쟁 가속

올해 1~7월 中 여객 1149만명

중국 노선 여객이 올해 들어 20% 넘게 늘면서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들이 중국 노선 확대에 나섰다. 진에어가 12년 10개월 만에 인천~엔타이 정기편을 다시 띄우는 가운데 이스타항공은 이미 같은 노선을 하루 2회까지 늘렸다.

1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진에어는 이날부터 인천~엔타이 노선을 주 7회 운항한다. 해당 노선 정기편 운항은 2013년 10월 이후 약 12년 10개월 만이다.

첫 운항편인 LJ865편에는 189석 규모의 B737-800이 투입된다. 구체적인 예약률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좌석 대부분이 예약돼 만석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정보포털에 따르면 올해 1~7월 중국 노선 여객은 1148만 6154명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 939만 6686명보다 22.2% 증가했다. 운항편은 같은 기간 6만 9357편에서 7만 4497편으로 7.4% 늘었다.

중국 노선의 여객 증가율은 일본보다 소폭 높았다. 일본 노선 여객은 같은 기간 1544만 5744명에서 1853만 6492명으로 20.0% 증가했다. 운항편은 8만 5565편에서 10만 1919편으로 19.1% 늘었다. 중국은 일본보다 운항편 증가 폭이 작았지만 여객 증가율은 더 높았다.

늘어난 수요에 맞춰 이스타항공도 중국 노선 운항을 확대했다. 지난해 9월 인천~엔타이에 취항한 이스타항공은 지난 7월부터 운항 횟수를 주 7회에서 주 14회로 늘렸다. 지난 3월 엔타이발 인천행 노선의 월평균 탑승률은 92%를 기록했다. 증편 이후에도 탑승률은 이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승혁 수습기자 sh95@

NARA CELLAR

역시!
몬테스

결국!
몬테스



2025 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
와인 부문 2년 연속 1위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싼 요금만으로 부족”… 알뜰폰, 제휴 서비스로 차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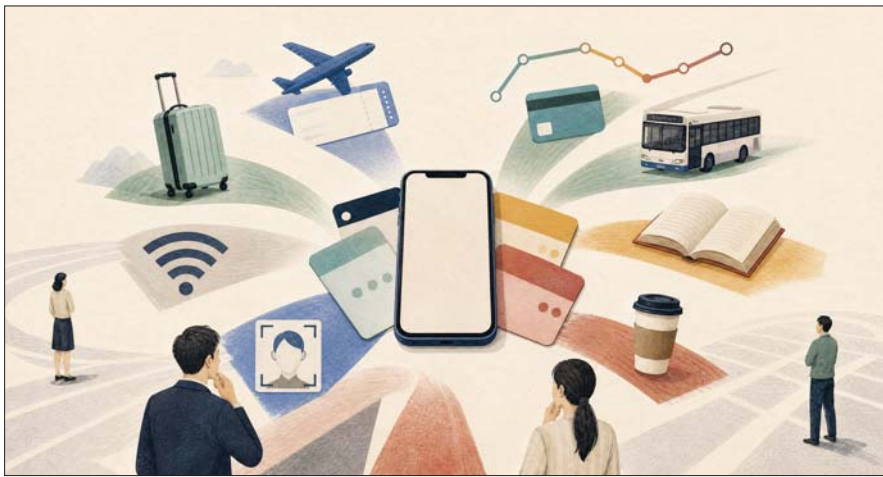
과기부, ‘알뜰폰 2.0’ 정책으로 알뜰폰 사업자 경쟁력 한층 강화

KT엠모바일, 로밍 서비스 ‘모비’ SK텔링크, 가입 시 상품권 지급 U+유모바일, 전자책 구독 서비스 토스모바일, 페이스페이 결합 상품

알뜰폰 업체들이 특화 상품 경쟁에 돌입했다. 올해 초 정부가 독자적인 경쟁력을 갖춘 알뜰폰 사업자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자 업계에서는 특화 서비스를 앞세워 상품성을 극대화하는 모습이다.

18일 정보통신 업계에 따르면 최근 통신 3사의 알뜰폰 자회사들은 생활·문화·여행 등을 강화한 상품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7월 알뜰폰 사업자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알뜰폰 2.0’ 정책을 발표했다. 통신 설비를 직접 구축하거나 요금제와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설계하는 등 독자성을 확보하는 계



ChatGPT에 의해 생성된 알뜰폰 업계가 생활·문화·여행 등을 결합한 특화 상품 경쟁에 돌입한 이미지.

주된 목적이다. 알뜰폰 사업 초기에는 통신시장 경쟁 촉진과 저가 요금제 공급을 통한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에 집중했으나 이를 한 단계 더 고도화한 것이다.

특히 서비스형·독립형 MVNO(가상이 동통신망 사업자, 즉 알뜰폰사업자)의 법적 정의와 설비 기준을 마련해 독자적인 요금제와 제휴 서비스 등의 설계를 돕는

다. 서비스형 MVNO는 이통사 무선망을 빌리되 가입자 관리·요금제 운영 등 일부 통신 기능을 직접 운영하는 모델이다. 독립형 MVNO는 기지국·주파수는 이통사 망을 쓰면서도 가입자 인증과 서비스 제어 등 핵심 통신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형태다.

이같은 변화는 알뜰폰 업체들이 특화

상품에 주력하는 배경이 됐다. 가격 경쟁격화로 가입자 이동이 잦은 알뜰폰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생활 양식에 따른 특화 상품으로 차별화에 나선 것이다.

KT엠모바일은 자유여행객을 대상으로 여행·로밍을 결합한 해외 데이터 로밍 서비스 ‘모비’를 지난 7월 선보였다. 일본·중국·대만·베트남 4개국에서 1일 990원에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로밍 결합 상품이다. 현지 유심 교체 없이 eSIM을 통해 해외 데이터 회선만 추가하는 등 편의성을 강조했다.

SK텔링크는 판촉 성격의 요금제를 이달 출시했다. 무제한 요금제에 신규 가입하면 12개월 동안 신세계상품권을 매월 1만5000원씩 지급하는 상품이다. 경쟁사로 이동이 잦은 알뜰폰 가입자 특성을 고려해 혜택을 분할 지급하는 방식으로 실질 부담을 낮추는 장기 행사다.

U+유모바일은 교통·문화 혜택을 앞세운 요금제 프로모션을 최근 실시했다. 지난 6월 출시한 교보문고 북플러스 알파요

금제는 교보문고의 전자책 구독 서비스 ‘sam’을 24개월 동안 무제한 이용하는 혜택이 담겼다. 앞서 선보인 티머니K-패스 요금제는 모바일 1만원 상당의 티머니 적립 쿠폰을 12개월 간 제공한다.

토스모바일은 자사의 금융 결제 시스템 페이스페이를 결합해 장기 가입을 유도하는 상품을 내놔다. 알뜰폰 개통 기준 다다음 달부터 페이스페이 결제 쿠폰을 24개월 동안 제공하고, 가입 기간 7개월이 지나면 매월 8000원씩 통신 요금을 추가로 할인해주는 식이다. 여기에 편의점 CU 할인을 더한 ‘토스×CU’ 요금제까지 2030 세대를 겨냥한 혜택을 선보이기도 했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명예교수는 “단순히 통신비 인하보다 소비자 생활 패턴에 맞춘 혜택이 실질적인 체감 효과 가져다 줄 수 있다”며 “앞으로도 사업자들은 소비자들의 어떤 필요를 충족시킬 것인지를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조민선 기자

msjo@metroseoul.co.kr



OTT, ‘트로트 팬덤’ 중장년층으로 저변 확대

넷플릭스, ‘사랑의 콜센타’ 몰아보기 티빙, ‘가왕쇼’ 투표로 팬 참여 확대 거실 TV로 콘텐츠 소비 변화 영향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들이 트로트 팬덤에 주목하고 있다. 초창기 화제성 높은 드라마와 예능을 앞세워 2040 세대 공략에 집중했다면 최근에는 키즈에 이어 중장년층까지 이용자 저변을 넓히고 있다.

트로트는 특정 가수를 중심으로 충성도 높은 팬덤이 형성돼 있어 OTT가 중장년층을 끌어들이는 새로운 카드로 떠오르고 있다. 단순히 방송 프로그램을 다시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특정 가수의 무대를 모아 보여주거나 투표 기능을 도입하는 등 팬들이 플랫폼을 반복해서 찾도록 만드는 전략도 등장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지난 5월 어버이날에 맞춰 ‘사랑의 콜센타’ 임영

웅 몰아보기’를 공개했다. 기존 TV조선 ‘사랑의 콜센타’에서 임영웅이 선보인 주요 무대를 약 5시간 분량으로 재구성한 콘텐츠다.

정통 트로트뿐 아니라 발라드와 합창 등 다양한 장르의 무대를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대신, 팬들이 다시 보고 싶어 하는 기존 방송 무대를 특정 가수 중심으로 재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티빙은 트로트 콘텐츠에 팬 참여 기능을 결합했다. 지난 11일 프로젝트 음악 예능 ‘가왕쇼’를 독점 공개했는데, MBN ‘현역가왕’ 시리즈를 연결하는 스핀오프로 역대 우승자 전유진, 박서진, 홍지윤 등이 참여한다.

본편 공개에 앞서 지난달 28일부터는 ‘가왕쇼 스페셜판’을 운영했다. 프로그램 미리보기와 기존 트로트 콘텐츠를 한곳에 모으고 투표 기능도 OTT 안에 넣었다. 방

송을 보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팬덤과 플랫폼의 접점을 확대한 것이다.

트로트 스타의 공연 콘텐츠도 OTT로 들어오고 있다. 티빙은 지난 2월 임영웅 콘서트 VOD를 공개했다. 공연장을 직접 찾은 팬뿐 아니라 OTT를 통해 공연을 다시 보려는 수요까지 겨냥했다.

OTT가 트로트에 눈을 돌리는 배경에는 이용 환경의 변화도 있다. 서비스 초기 핵심 이용자가 20~40대였다면 OTT 대중화와 스마트TV 보급으로 거실에서 콘텐츠를 소비하는 환경이 확대되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지난해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에 따르면 TV를 통해 OTT를 시청하는 비율은 36.4%로 전년 23.8%보다 12.6%포인트 높아졌다. 모바일 중심의 개인 시청에서 TV를 통한 시청이 늘면서 중장년층까지 OTT에 접근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최빛나 기자 vitna@

알리바바 클라우드, 韓 제3 데이터센터 구축

엔드투엔드 AI 풀스택 제공 목표

알리바바 클라우드가 한국에 세 번째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인공지능(AI) 인프라와 AI 에이전트 서비스 확대에 나선다. 2016년 한국에 진출해 클라우드와 디지털 전환(DX) 서비스를 제공해온 가운데 AI 수요 증가에 맞춰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다. 지난해 두 번째 데이터센터를 연 지 1년 만이다.

알리바바 클라우드는 18일 서울 강남구 조선 팔리스 서울 강남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 리전(지역)에 세 번째 데이터센터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번 출범으로 알리바바 클라우드는 전 세계 30개 리전, 104개 가용영역(AZ)을 보유하게 됐다.

제2 데이터센터 이후 1년 만에 제3 데이터센터를 구축한 배경으로는 AI 수요 증가를 꼽았다. 윤용준 알리바바클라우드 한국 총괄 지사장(사진)은 “2022년에 한국 리전 첫 번째 데이터센터를 오픈하고 3년이 걸렸는데 단 1년 만에 세 번째 데이



터센터를 오픈했다”며 “한국에서 특히 AI와 관련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알리바바 클라우드는 이번 데이터센터 출범을 계기로 인프라부터 AI 모델, 플랫폼, 애플리케이션까지 아우르는 엔드투엔드 AI 풀스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알리바바 클라우드는 거대언어모델(LLM) 큐웬(Qwen)과 이미지·영상 생성 모델 등 다양한 모델을 제공하고, 모델 학습·파인튜닝·배포·평가 지원은 플랫폼도 운영하고 있다.

이번 데이터센터 출범을 계기로 AI 에이전트 관련 서비스도 한국 리전에서 확대한다. 에이전트 개발·배포·운영을 지원하는 ‘에이전트 런’과 ‘스타웍스’, 에이전트 테스트를 위한 ‘에이전트 샌드박스’, 보안을 지원하는 ‘에이전트 시큐리티 센터’와 ‘AI 시큐리티 가드레일즈’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보민 수습기자 kbm@

AI 비즈니스 혁신 ‘KT 클라우드 서밋’

KT클라우드는 내달 15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KT 클라우드 서밋 2026’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기업 및 공공기관 고객과 파트너사를 대상으로 AI 데이터센터(AI DC), 클라우드, AI 기반 기술·서비스 및 실제 구축 사례를 공유하고, AI 시대의 비즈니스 혁신 방향을 모색하는 대표 연례 행사다.

올해 행사 슬로건은 ‘당신의 비즈니스를 위한 AX’다. 고객이 인공지능 전환(AI X)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신 AI 인프라와 클라우드 기술, 실제 현장 경험 기반의 노하우를 집약해 소개한다.

회사는 현장 참석이 어려운 고객과 업계 관계자들을 위해 온라인 생중계도 병행한다. /조민선 기자

LG U+, 벤츠 신형에 실시간 콘텐츠 제공

라이브 TV 플러스, 벤츠 심사 통과 정식 소프트웨어 벤더 등록 ‘의미’

LG유플러스는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의 신형 ‘더 뉴 S 클래스’에 실시간 영상 채널 ‘라이브 TV 플러스’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라이브 TV 플러스는 차량 안에서 뉴스, 골프, 음악, 예능, 키즈 등 총 28개 방송 채널을 시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별도로 계정 인증 절차 없이 원하는 채널을 바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DMB 방식이 아닌 차량용 무선 통신을 기반으로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전송한다. 지하주차장, 터널 등 전파 음영 지역에서도 끊김없이 시청 가능하다. 운전석, 동승석 등 차량 내 설치한 여러 디스플레이스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시청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메르세데스 벤츠 차량



LG유플러스가 실시간 영상 채널 ‘라이브 TV 플러스’를 메르세데스 벤츠 신형 ‘더 뉴 S 클래스’ 차량에 탑재한다. /LG유플러스

환경에 최적화된 사용자 경험(UX) 협력을 통해 개발했다. 브랜드 특성과 고객 성향,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MBUX) 특성을 반영했다.

특히 LG유플러스가 메르세데스 벤츠의 기술·품질·보안 심사를 통과해 정식 소프트웨어 벤더로 등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조민선 기자

‘LG·SKT·업스테이지’ 독파모 최종 진출

프로젝트 2차 단계평가 결과

정부가 추진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프로젝트 2차 단계평가에서 LG AI연구원·SK텔레콤·업스테이지 정예팀이 다음 단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모티프테크놀로지스는 근소한 점수 차로 탈락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18일 이 같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2차 단계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2단계 참여팀이 개발한 모델은 모티프테크놀로지스의 ‘모티프3’, 업스테이지의 ‘솔라 오픈2’, SK텔레콤의 ‘에이닷 엑스 K2’, LG AI연구원의 ‘케이-엑사원 2.0’이다. 이 가운데 2차 단계 평가 결과 최종 진출팀은 LG AI연구원·SK텔레콤·업스

테이지로 결정됐다. 평가는 벤치마크 40점, 전문가 35점, 사용자 25점 등 3개 항목을 총 100점 기준으로 진행했다.

벤치마크 평가는 글로벌 성능과 국내 활용성을 함께 검증했다. AI 모델 평가 전문 플랫폼 포아티피셜 애널리시스가 수행하는 AAI 벤치마크 평가(25점)를 새롭게 도입했으며, 국가정보화진흥원(NIA) 벤치마크 평가(15점)를 병행해 점수를 합산했다.

과기정통부는 다음 단계 진출팀에 대한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B200 지원 규모를 올해 상반기 768장 수준에서 하반기 1000장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글로벌 AI 모델 경쟁 심화와 주요국이 AI 모델을 국가안보 전략자산으로 다루는 흐름을 고려해, 최상위급 독자 AI 모델 개발을 위한 새로운 지원체계도 관계부처와 논의하고 있다. /조민선 기자

30조 넘는 빚투... 코스피 출렁이자 2030 개미들 ‘벼랑 끝’

7거래일 만에 빚투 규모 3조 늘어
대차거래 잔고 지난해보다 56% ↑
2030 신용융자 잔고 4.2조로 정점

#. 시중은행 A행에 다니는 윤모(30·남)씨는 마이너스통장과 신용대출을 동원해 주식에 투자해왔다. 코스피가 9000선 후반까지 오르는 동안에도 그는 매도하지 않았고, 이후 지수가 43.9% 급락하면서 전 재산과 마이너스통장·신용대출 자금이 여전히 손실 구간에 몰려 있다. 같은 은행 김모(31·남)씨의 상황도 비슷하다. 단기 매매를 하던 그는 코스피가 가파르게 오르자 ‘포모(FOMO·소외 공포)’ 심리에 빠지면서, 마이너스통장 두 개로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조선 등에서 조정을 받으며 전 부문에서 손실을 보고 있다. 그는 “대출로 투자했다가 물려서 업무에 집중 못하는 동료도 여럿”이라고도 했다. 매일 대출과 투자 상품을 다루는 은행 직원들마저 ‘빚투’(빚내서 투자)에 뛰어들었다가 손실을 입고 있는 것이다.

코스피가 6000~7000선을 오가며 등락을 이어가는 가운데, 시장 곳곳에선 과열 경고등도 함께 켜지고 있다. 신용거래용자 잔고가 다시 증가하며 ‘빚투’(빚내서 투자)가 불어난 데다, 공매도 선행지표로



따능시로 생성한 ‘스마트폰으로 주식 앱을 들여다보는 손’ 관련 이미지.

잡히는 대차거래 잔고까지 동반 상승하면서 시장 내부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빚의 굴레

1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신용거래용자 잔고는 30조8675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날보다 소폭 줄었지만 지난 4일 27조4038억원까지 떨어진 것과 비교하면 빚투 규모가 3조4637억원 늘었다. 신용거래용자는 상승장 초반 증시 유동성을 공급하며 상승 탄력을 키우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과도하게 늘어난 잔고는 시장 과열 신호로도 지목된다. 특히 증시가 급락할 경우 반대매매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며 낙폭을 확대할 수 있어 시

장 체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 증권사는 보통 주가 하락으로 담보 부족 상태가 이를 이상 이어지면 그다음 날 주식을 하한가(-30%)로 처분한다.

증시 주변을 맴돌며 기회를 엿보는 개미들도 늘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97조원대로 떨어졌던 투자자에탁금은 14일 기준 100조7103억원으로 불어났다. 올해 최고점이었다던 5월 12일 137조4174억원에는 못미치지만 지난 13일부터 사흘만에 100조원대로 다시 올라섰다. 증시 빚투와 맞물려 가계대출도 빠르게 늘고 있다.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19일 발표되는 올해 2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 잠

정치는 2000조원을 무난히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가계신용은 국내 가계부채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로, 은행·보험·저축은행·상호금융 등 금융기관에서 받은 가계대출과 신용카드 등으로 외상 구매한 돈을 합한 수치다.

공매도 베팅 규모 역시 빠르게 커지고 있다. 한국거래소(KRX)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공매도 순보유 잔고는 지난 12일 기준 19조4480억원이다. 지난달 말 16조7343억원 보다 2조7000억원 가량 많다. 추가 공매도 대기 수요도 빠르게 불어가고 있다. 공매도 선행 지표인 대차거래 잔고는 지난달 30일 133조4126억원까지 줄었다가 지난 14일 173조1899억원으로 불어났다. 지난해 말(110조9229억원)에 비해서는 56.14% 급증했다. 대차거래는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미리 빌리는 절차라는 점에서, 잔고 증가는 향후 공매도 물량 확대 가능성을 시사한다.

◆2030 한숨 늘어

흔란스러운 시장 상황에 특히 20·30 투자자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서울의 한 사립대 계약직으로 일하는 취업준비생 김모(32)씨는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월세 등 고정비용이라도 줄여보기 위해 약간의 생활비를 제외하고는 모두 주식 계좌에 넣었다”며 “최근 손실이 커져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직장인 윤모(35)씨는 상장지수

펀드(ETF)와 대기업 우량주 위주로 투자했다가 약 600만원을 잃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내 10대 증권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30대 신용융자 잔고는 지난해 말 3조12억원에서 올해 5월 4조2214억원으로 40.6% 급증하며 정점을 찍었다. 같은 기간 전체 연령 신용융자 증가율 36.7%보다도 약 4%포인트 빠른 속도였다.

올해 상반기 하나·KB·NH투자증권의 연령대별 신규 계좌 개설 건수도 20·30대가 34만2749건으로 타 세대에 비해 많았다.

전문가는 이런 흐름을 ‘투자’가 아닌 ‘투기’로 규정하며 경고하고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20·30대는 주식투자 경험이 수십 년씩 쌓인 세대가 아니다 보니, 신용융자나 마이너스통장을 이용해 주식에 넣는 위험한 방식에 상대적으로 쉽게 손을 댄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단기적으로는 수익을 낼 수 있어도 변동성이 심한 국면에서 중장기적으로 버틸 수 없다면 그건 투자가 아니라 투기”라며 “주식이든 어떤 투자든 자기 소득에서 남는 돈으로 해야 하는데, 빚을 내서 투자하면 장기적으로 버틸 수 없다. 여기서 ‘장기’는 몇 달도 채 안 된다”고 경고했다.

/김아영 수습기자

aykim@metroseoul.co.kr



metro

메리츠증권, 홍콩에 첫 해외법인... 글로벌 사업 ‘시동’

올해 하반기 출범 목표
브로커리지 업무 맡을 예정

메리츠증권이 홍콩에 첫 해외법인을 설립하고 글로벌 사업 확대에 나선다. 그동안 국내 사업에 집중해 온 메리츠증권이 해외 거점을 마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은 올해 하반기 출범을 목표로 홍콩 현지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현지 금융당국의 인허가 절차에 따라 설립 시점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신설 법인은 홍콩 현지에서 투자 기회를 발굴하고 거래를 중개하는 한편 해외 딜 소싱 등 브로커리지 업무를 수행할 전망이다. 이를 통해 본사의 기업금융(IB)과



메리츠증권 전경.

세일즈앤드레이딩(S&T) 사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법인 설립을 위한 인력 구성도 진행되고 있다. 초대 법인장 인선을 마친 가운데 본부장급을 비롯한 현지 금융시장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메리츠증권의 해외 진출은 국내 주요 증권사 가운데 상대적으로 늦은 편이다. 총 16개 국내 증권사가 해외 점포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 국내 10대 증권사 중 해외 거점을 보유하지 않은 곳

은 메리츠증권이 유일하다. 다른 대형 증권사들은 이미 해외법인이나 사무소 등을 통해 글로벌 사업 기반을 구축해 왔다.

첫 해외 거점으로 홍콩을 선택한 것은 아시아 금융허브라는 지역적 특성과 함께 글로벌 자금과 투자 기회가 집중돼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중국 시장과 연결되는 관문 역할을 하는 홍콩을 거점으로 현지 거래 및 투자 기회를 발굴하고, 이를 국내 본사의 IB·S&T 사업과 연계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홍콩은 아시아 금융시장의 허브인 만큼 현지에서 딜 소싱이나 브로커리지 등을 추진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해외 대체투자 등 다양한 투자 기회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도 활용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KB증권, AI 활용 영상 디지털 콘텐츠 ‘금상’

KB증권은 ‘ICT 어워드 코리아 2026’에서 AI 기반 영상 콘텐츠로 디지털 콘텐츠·마케팅 분야 금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ICT 어워드 코리아’는 한국정보과학진흥협회가 주관하는 정보통신기술 분야 시상식으로 올해로 23회째를 맞았다. P·C·모바일 웹·앱·디지털 플랫폼·프로모션 등 총 211개의 작품이 출품된 가운데, KB증권은 증권·부동산 분야에서 디지털AI 영상으로 금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작은 ‘연금패키지로 뱅뱅하게’, ‘국내주식 웰컴백’, ‘중개형 ISA’를 주제로 제작한 3편의 AI 기반 영상 광고이다. ‘연금패키지로 뱅뱅하게’와 ‘중개형 ISA’ 영상은 절세와 노후 준비 등 장기 자산 관리의 중요성을 알기 쉽게 전달했으며, ‘국내주식 웰컴백’ 영상은 국내주식 투자에 관심 있는 고객에게 관련 혜택과 정보를 소개했다. 특히 스크립트 작성부터 보이스 오버 생성, 시각적 요소 구성, 편집에 이르기까지 영상 제작 전반에 AI를 활용했다. 이를 통해 기존 영상 제작에 소요되던 시간과 절차를 줄이고, 시장 환경과 고객 관심 변화에 따라 콘텐츠를 신속하게 수정·재배포할 수 있는 제작 체계를 마련했다.

KB증권은 이번 AI 영상 제작을 통해 콘텐츠 제작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높이는 한편, 앞으로도 고객에게 필요한 투자 및 자산관리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AI 기술을 디지털 고객 경험 전반에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이홍구 KB증권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 ‘KB M-able(마블)’을 통해 고객의 투자 여정과 자산성장을 지원하는 디지털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엔비디아, 오픈AI에 149조 신용 지원... ‘순환금융’ 논란

자사 AI 가속기 독점 공급 조건
SB에너지에 15억달러 별도 투자

엔비디아가 오픈AI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에 1000억달러 넘는 신용 지원을 제공한다.

엔비디아는 미국 오하이오주 파이크카운티에 건설 중인 ‘포츠파이크’ 데이터센터 캠퍼스의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개발사인 소프트웨어 회사 SB에너지에 최대 1050억달러(약 149조원) 규모의 여러 건의 ‘잔존가치 보증계약(residual value guaranties)’을 맺었다고 17일(현지시간) 밝혔다.

엔비디아는 “이부지에 4.25기가와트(GW) 컴퓨팅 용량을 확보하기 위한 신용 지원”이라고 설명했다. 계약상 이 데이터센터의 임차인은 오픈AI다. 계약 기간은 20년이다.

엔비디아는 “4.25GW 규모의 AI 팩토리는 엔비디아 GPU 약 150만개 또는 엔비디아 매출 1500억~2000억달러(약 211조~282조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포츠파이크 1단계는 4.25GW 규모로, 2028~2030년 단계적으로 가동에 들어간다. 엔비디아가 자사의 AI 가속기를 독점 공급하는 조건으로 SB에너지에 신용 지원을 제공하고, 20년 장기 임대계약을 맺

은 오픈AI가 임차료를 내면서 엔비디아가 제공한 보증 규모가 줄어드는 구조다.

만일 오픈AI가 파산하거나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트리거 이벤트’가 발생하면 엔비디아가 ‘보증된 최소 임대차치’와 ‘대체 임대·매각으로 회수한 금액’의 차액을 SB에너지에 대신 지급하되 이후 오픈AI에 그 금액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공식 자료는 설명했다.

엔비디아는 포츠파이크 2단계 3.75GW 용량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의 보증계약을 제공할 재량권을 갖는다.

엔비디아는 잔존가치 보증계약과 별도로 SB에너지에 15억달러(약 2조1000억

원)를 투자한다고 덧붙였다.

오픈AI가 비상장사로 별도 신용등급이 없다 보니 엔비디아의 대차대조표를 신용보강 수단으로 빌려 쓰는 구조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러한 보증을 둘러싸고 실리콘밸리와 월가에서는 엔비디아가 보증을 서서 빌린 돈으로 오픈AI가 다시 엔비디아의 AI 칩을 구매하는 ‘순환 금융’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이 같은 우려를 일축했다.

그는 이날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글에서 “이것은 순환금융인가? 그렇지 않다”며 “오픈AI가 임대료를 납부하고 용량이 가동되면 엔비디아의 잔여 위험은 감소한다”고 반박했다.

/신하은 기자

“전력수급기본계획, 토론·공론화 거쳐 10월 중 정부안 확정”

김성환 기후부 장관, 기자단 차담회
2040년까지 대체 전원 확보 ‘변수’
신규 원전, 에너지 믹스 최대 쟁점

기후재난 대응 체계 현대화 ‘시급’
산업용 지역요금제 내주 기본안 공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정부의 중장기 에너지 정책 청사진인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과 관련해 “미리 답을 정해놓고 추진하는 방식이 아닌, 국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본격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대공약수를 찾겠다”고 밝혔다.

김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들과의 차담회에서 12차 전기본 추진 일정과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기후부는 9월까지 한 달간 분야별 토론회와 공론화를 거쳐 10월 전기국회 중 12차 전기본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기후대응위원회 보고 및 국회 보고 등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완성하게 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차담회를 갖고 발언하고 있다. /기후부

◆2040년 석탄발전 중단과 전력 수요 증가…‘에너지 믹스’ 최대 쟁점
이번 12차 전기본의 핵심 변수는 2040

년까지의 전력 수요 예측과 석탄발전 폐지에 따른 대체 전원 확보다. 김 장관은 “2040년은 정부가 석탄발전 중단을 공언한 연도와 맞물린다”며 “현재 가동 중인 60개 발전기 중 2040년 이후에도 법적 설계수명(30년)이 남아있는 20개 발전기의 처리 문제가 걸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석탄발전을 줄일 경우 이를 대체할 발전원을 어떻게 구성할지, 봄·가을철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충돌할 때 배터리(ESS)나 양수발전 등 저장장치를 어느 규모로 가져갈지가 관건”이라며 “가스발전 증가에 따른 탄소 배출을 줄여 2050년 탄소 중립으로 가는 이행 경로를 정밀하게 설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신규 원전을 12차 전기본 최대 쟁점으로 꼽았다. 김 장관은 “최대 관심사는 원전을 할 거냐 말 거냐, 한다면 몇개 정도를 추가로 할거냐, 이게 에너지 믹스의 최대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늦어도 다음 주 중 공론화 방식과 일정을 확정해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무부처 장관 개인의 의사로 정책을 정

할 수 없는 만큼, 충분한 토론을 거쳐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200년 빈도 호우 상례화…기후재난 대응·용수 공급 체계 전면 재정비

최근 호남·경상권 등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와 관련해 김 장관은 기후재난 대응 체계의 현대화를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김 장관은 “과거 30년, 50년 빈도로 내리던 경우 대비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200년 빈도의 극한 호우와 가뭄이 상례화되는 상황에서 국가 재난 예보 및 대응 인프라를 전면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상청 레이더 및 위성장비의 분석 픽셀을 정밀화해 예측력을 극대화하는 한편, 피해 심각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 하수관로 배수 용량을 우선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실 내 기후위기 대응 조직 체계 강화와 내년도 예산 증액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첨단 산업단지 물 부족 우려에 대해서는 ‘광주·전남 반도체 공장 등의 용수 공급을 위해 동북댐 증고, 하수 재활용, 농업 용수 전환 등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다”

며 “사업을 압축적으로 진행하더라도 환경영향평가나 생태적 피해 최소화 원칙을 눈감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산업용 지역요금제’ 내주 공개…송전망 갈등은 지중화·보상 확대로 풀어

지역별 전기요금제 명칭을 ‘산업용 지역요금제’로 정하고 제도 도입에 속도를 낸다. 김 장관은 “일반 주민의 요금이 차등화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명칭을 정했다”며 “다음 주 공청회를 열어 기본안을 보고하고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송전망 건설 지연 및 주민 갈등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보상책과 친환경 공법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김 장관은 “기존 철탑을 복층화해 신규 설치를 최소화하고, 마을 인근 구간은 최대한 지중화하겠다”며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지역에 지원되는 예산이 주민들에게 직접 돌아가도록 하고, 입지선정위원회 절차를 민주화하여 갈등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공동기금법인, 탈퇴 사업주 3주 내 행정청 보고 의무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고용부, 이르면 이달 말부터 적용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공동기금법인)을 중도 탈퇴한 사업주에 대한 관할 행정청의 사후 관리 제도가 신설된다. 탈퇴 사실을 즉시 파악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사내기금) 설치 등 법적 의무 이행을 지도함으로써 근로자 복지 혜택의 공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이르면 8월 말부터 본격 적용된다.

현행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르면 공동기금법인에서 탈퇴한 사업주는 배분받은 재

산을 활용해 소속 근로자를 위한 사내기금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 사내기금 재원으로 출연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은 사업주의 탈퇴 사실이나 이후 법 집행 여부를 행정청이 적기에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가 없어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특정 사업주가 공동기금법인을 탈퇴할 경우, 기금법인은 해당 사실을 3주 이내에 관할 행정청에 보고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보고받은 내역을 바탕으로 탈퇴 사업주의 사내기금 설치 등 법적 의무 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근로자 복지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현장 지도와 독려를 강화할 방침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축산물품질평가원, 유통현장 디지털 전환

도축장에 전자출하시스템 적용

축산물 출하 및 유통 현장에서 종이 서류와 수기 작업이 사라지고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8월부터 강원도 내 도축장 중 최초로 황성케이씨 도축장에 ‘전자출하시스템’을 시범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전자출하시스템은 농가와 운송업자, 도축장 간 거래 출하·입고 정보를 전자적으로 연결하는 유통 플랫폼이다. 기존의 종이 서류 작성과 수기 입력 방식을 대체해 축산물 이력 정보와 유통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업무 처리 시간을 대폭 단축하는 것은 물론 정보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황성케이씨 도축장 전경. /축산물품질평가원

특히 이번 황성케이씨 도입은 황성군, 황성축협, 황성케이씨가 보유했던 기존 행정·생산 시스템과 축산물품질평가원의 데이터베이스(DB)를 직접 연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황성케이씨를 포함해 전국 19개 도축장에 전자적자원관리 시스템(ERP)과 전자출하시스템 연계를 완료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취약계층 행정심판 청구, 변호사가 돕는다

권익위 ‘행정심판 법률상담 서비스’
청구 준비 단계부터 폭넓은 상담 지원

행정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싶어도 법률 지식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던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해 청구 준비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취약계층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심판 법률상담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행정심판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침해된 권리를 법원 소송보다 쉽고 신속하게 구제받는 제도다. 취약계층의 경우 행정심판 청구 후 국선대리인을 신청하면 비용 부담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기존 국선대리인 제도는 이미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어, 정작 국민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느끼는 ‘청구 준비 단계’에서는 법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행정심판 법률상담 서비스 대상은 기존 국선대리인 제도가 법률상 요건을 충족한

행정심판 청구인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것과 달리, 더욱 폭넓게 법률 상담을 제공할 수 있게 설계됐다. 다만 지원이 꼭 필요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우선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국민은 ‘온라인 행정심판’ 누리집 내 신청 창구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중앙행정심위의 상담 필요성 검토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문 변호사와 1대1 맞춤형 상담을 받게 된다.

특히 상담 이후 실제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경우, 사전 상담을 진행했던 변호사를 국선대리인으로 우선 선임할 수 있도록 해 상담부터 심판 절차까지 연속성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조소영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은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싶지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웠던 국민에게 이번 서비스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관점에서 필요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더욱 촘촘한 권익구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왼쪽부터)KT AX사업부문장 박상원 전무, 농협경제지주 김주양 대표이사, 한국마이크로소프트 김훈상 부사장이 AX 파트너십 체결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농협

농협경제지주 ‘NH싱글물’ 유통분야 AI 기반 인프라 확대

KT·한국마이크로소프트와 ‘맞손’ 퍼블릭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 전환

농협경제지주가 KT, 한국마이크로소프트(MS)와 손잡고 온라인 쇼핑몰인 ‘NH싱글물(농협몰)’의 디지털 유통 혁신에 나선다. 명절이나 대규모 행사 기간 급증하는 접속 트래픽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AI(인공지능) 기반 인프라를 확대해 산지 농가의 판로를 넓힌다는 구상이다.

농협경제지주는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KT·한국마이크로소프트와 ‘클라우드 기반 유통 AX(인공지능 전환) 혁신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NH싱글물은 기존 시스템에서 퍼블릭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명절 성수기나 대형 할인 행사 등 이용자가 한 번에 몰리는 상황에서도 지연 없는 안정적인 서비스 환경을 갖추게 됐다.

농협은 이 같은 서비스 인프라를 바탕으로 NH싱글물의 경쟁력을 키우고 AI 중심의 농산물 유통 혁신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3사는 e커머스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가동한다. 주요 협력 분야는 ▲AX 과제 공동 발굴 ▲AI 기반 고객 서비스 개선 ▲데이터 기반 마케팅 고도화 등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산업인력공 “AI로 행정용어 쉽게 확인”

‘HRDKorea MCP’ 서비스 가동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이 공단의 공공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가져와 답변해 주는 ‘HRDKorea MCP’ 서비스를 18일부터 본격 가동한다.

MCP(Model Context Protocol)는 AI 모델이 외부 데이터나 시스템과 표준화된 방식으로 연결되도록 지원하는 통신 규격이다. 공단은 개방 중인 공공데이터 API 229개 중 핵심 60여 개를 선별해 MCP로 개발·배포했다.

서비스 대상은 국가자격시험, 해외취업 지원,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과정평가형·일학습병행 자격, 숙련기술진흥, 외국

인고용지원 등 6개 사업 분야(41개 가능)다. 이용자는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인증 키 발급 없이 챗지피티(ChatGPT), 클로드(Claude) 등 생성형 AI 서비스에 공단 MCP 서버 주소만 등록하면 24시간 연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시험 일정·합격률 조회, 해외 채용공고 검색, NCS 기반 직무·자격 추천 등을 일상에 질문 한 번으로 1분 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정확한 행정용어를 몰라도 답변 조화가 가능하며, 공단 실시간 DB를 직접 조회하는 방식이라 AI의 고질적 문제인 ‘환각(할루시네이션)’ 현상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AI·CLOUD·DATA
연계플랫폼 평생교육원

2026 차세대 AI·디지털 트윈 실무 인재 양성과정 1기

2026년 8월 31일 ~ 2027년 3월 04일



모집 개요

과정명: 차세대 AI·디지털 트윈 실무 인재 양성과정 1기
교육기간: 2026년 8월 31일 ~ 2027년 3월 04일
교육시간: 월~금, 09:00 ~ 18:00
교육장소: AI-CLOUD-DATA 연계플랫폼 평생교육원
교육원 위치: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64 메타빌드 제2사옥 4층
상담 문의: 010-5155-8299

지원 자격 및 혜택

학력·전공 무관! 비전공자 및 인문계열도 기초부터 입문 가능
우대 사항: Python, Java 등 프로그래밍 기초 수강생 우대
추천 대상: IT/빅데이터/AI/ITS/데이터엔지니어 직무 취업 희망자
교육비 혜택: 총 수강료 40만원(훈련장려금 매달 수령 가능)

주요 교육 내용

총 1,000시간 중심의 실무 및 프로젝트 교육

AI 서비스 연계기술(ESB/API/MCP/A2A), Node.js/Express 기반 웹 응용
Python/JAVA/바이트코딩 기반 데이터 분석, RESTful API 설계
React 기반 프론트엔드 개발, 데이터베이스 및 GIS 기반 데이터 처리
생성형 AI·GPT·LLM 실무 교육, 디지털트윈 서비스 구현 등

신청 및 문의

신청방법: 메타빌드 AI·클라우드·데이터 연계플랫폼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신청
* 산대특 4기 - 홈페이지 신청 (QR코드 연계)



수업과정
상세보기



홈페이지
바로가기

전남광주, 250만평 반도체산단 승부수… ‘국가 1호’ 유치전

광주군공항 부지 826만㎡ 산단 추진
반도체특별법 시행 국비 길 열려
용수·전력 인프라 전액 지원 가능
산업부 하반기 클러스터 지정 전망
마스터플랜·정주 인프라 구축 착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지원 특별법’(이하 반도체 특별법) 시행에 따라 호남권 반도체산업단지에 대한 국비 지원이 가능한 ‘국가 1호 반도체클러스터’로 지정하기 위한 노력이 구체화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지난 11일 시행된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은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산단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세제·행정·재정적 지원을 명문화했다. 특히 산업기반 시설 조성 사업비를 50~100%까지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할 수 있고, 용수·전력 등 반도체 산단 필수 인프라를 전액 국비로 구축할 수도 있다. 산단 건립과 관리 운영에 대한 인·허가 절차도 다른 사업보다 우선해 신속 처리토록 할 수 있다.

특별법 시행에 따른 국가 1호 클러스터 지정은 올해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클러스터 지정 절차는 산업통상부가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5일 시 광주청사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대응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직접 지정하거나 공모를 통해 각 지자체 신청을 받을 수도 있다. 지자체 공모 절차로 진행된다면 9월에서 10월 중에는 산업부가 클러스터 지정 공모 공고를 내고 각 지자체로부터 조성 계획서 신청을 받을 전망이다.

시행령에는 클러스터 지정에 대해 ‘수도권 외 지역을 우선 고려한다’는 지역균형 발전 원칙이 담겨 있어 현재로서는 전남광주와 충북 청주 등 지자체간 각축전이 치열하다.

실제 전남광주특별시는 행정통합 전부터 반도체 산단 유치 노력과 함께 반도체

특별법 입법 동향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올 상반기부터 나선 국가 클러스터 지정 사전 준비 작업은 광주군공항 부지 826만㎡(250만 평) 일대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이 공식화되면서 급물살을 탔다.

또한, 특별시는 전문연구기관에 ‘지역 내 반도체산업 육성 전략과 국가 클러스터 지정을 위한 과제’ 연구 용역을 의뢰하여, 전남광주 지역 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과 육성 전략, 국가 1호 첨단전략산업 클러스터 지정 관련 계획 수립을 검토하고, 특별시는 반도체특별법 시행과 산업부의 클러스터 지

정 공모가 압박함에 따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부터 착수했다. 지난 5일에는 시장 주재로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대응상황 첫 점검회의를 열고,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시는 클러스터 지정·조성과 핵심 인재 안착을 위해서는 정주 여건이 중요하다고 판단, 주거·교통·교육·의료를 아우르는 인프라 확충 전략 수립에도 나섰다.

반도체 클러스터는 반도체 앵커기업 제조 팹(Fab)과 소재·부품·장비 등 거대한 반도체 산업 벨트를 구축하는 일로, 최소 13만명에서 20만명 인구 유입이 예상됨에 따라시는 ‘살기 좋은 반도체도시 정주여건 혁신 전담팀(ITF)’를 꾸려 정주 기반시설 통합전략 수립에 착수하여, 2027년 세부계획 수립을 거쳐 2030년 정주 기반시설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별시는 클러스터 지정 시 인프라 예산 지원 효과가 바로 발생하는 만큼, 시는 연구용역과 정주여건 개선 로드맵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내년도 국비 예산안 반영부터 신속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전남광주=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metro

지역 이모저모

진도군

‘건강버스’로 의료공백 해소

진도군이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직접 찾아가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건강버스’ 사업을 운영하며, 주민 중심의 ‘원스톱 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찾아가는 건강버스는 의료와 건강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현재까지 27개 마을에서 597명을 대상으로 기초 건강검사, 만성질환 상담, 건강생활 실천교육, 금연과 절주 상담, 치매와 정신건강 상담 등 다양한 건강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해 주민들이 여러 기관을 직접 찾아다니는 불편을 줄이고 있다.

/진도(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봉화군

토양분석 전 항목 ‘매우 우수’

봉화군이 과학적인 토양검정을 기반으로 농가의 합리적인 비료 사용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뒷받침하는 분석 역량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봉화군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이 주관한 토양 분석 숙련도 시험에서 토양 유기물과 유효인산, 치환성 양이온 등 8개 전 항목에서 ‘매우 우수’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토양 분석 숙련도 평가는 전국 분석기관의 토양검정 정확성과 정밀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매년 시행된다.

/봉화(경북)=송기섭 기자 gdnws8082@

경상국립대학교

우주항공방산 등 신입생 모집

경상국립대학교가 2027학년도 수시 모집에서 3729명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전체 모집 인원 4644명의 80.3%다. 원서 접수는 오는 9월 7일부터 11일까지다. 이번 입시부터 국내 첫 우주항공 분야 단과대학을 확대 개편한 우주항공방산대학과 신설 AI대학이 함께 출범해 첫 신입생을 받는다. 우주항공방산대학은 기존 우주항공대학에 기계공학부를 편입해 5개 전공 체제로 확대됐다. 신입생은 글로벌대학30 사업 기간 등록금을 전액 지원받으며 ‘CSA-그랑제콜’을 표방한 3학기제 몰입 교육으로 3년 만에 학사 졸업도 가능하다. /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국립부경대학교

국립대학육성평가 최고등급

국립부경대학교가 교육부 주관 ‘2026년 국립대학육성사업 성과평가’에서 자체성과 관리 부문 S등급, 교육혁신 성과 부문 A등급을 받았다. 국립대학육성사업은 국립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통해 지역 발전을 이끌 인재를 양성하도록 교육부가 지원하는 대표적인 재정지원사업이다. 교육부는 대학이 세운 혁신 과제와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해 사업비를 차등 지원하는데, 올해부터는 평가 체계를 거점국립대와 국가중심대·교원양성대 부문으로 이원화해 성과 중심의 재정 배분을 한층 강화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지난 14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방문한 APEC 9개 회원국 청년 연구자들이 사천항공우주과학관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남, APEC 청년 연구자 현장 교류

9개 회원국서 16명 참가
KAI·수산연구소 잇단 방문

경남도는 ‘APEC STEM 청년 연구자 포럼’에 참가한 APEC 9개 회원국 청년 연구자 16명이 지난 14~15일 도내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경상남도 수산자원연구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APEC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로 미국, 중국, 일본, 호주 등 21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STEM은 과학(Science)·기술(Technology)·공학(Engineering)

·수학(Mathematics)을 통합한 교육 및 직업 분야를 뜻한다.

이번 포럼에는 한국인 5명을 비롯해 브루나이 2명, 필리핀 3명, 호주·대만·캐나다·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미국이 각 1명씩 참가했다. 2017년부터 온라인 비대면으로 진행하던 방식을 지난해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로 대면 방식으로 전환했으며, 올해로 2회째를 맞았다. 이번 포럼은 지난 10일부터 포항 포스테크(POSTECH)에서 열렸으며 인공지능(AI) 기반 STEM 연구를 주제로 진행됐다. /경남=송병호 기자 metrobusan@

경북, 청년과 함께 걷는 ‘독립운동 역사로드’

안동·청송·영양서 1박 2일 진행

경북도와 경북문화관광공사는 광복절을 맞아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안동·청송·영양 일원에서 전국 청년 30여 명이 참여하는 ‘독립운동의 발자취를 따라, 경북 역사로드’를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경북의 독립운동 유적과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지역 관광·문화자원과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학생과 20대 청년 등 참가자들은 1박 2일 동안 세 지역의 독립운동 현장과 관광지를 둘러보고 지역 미식과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첫날에는 영양 남자현역사공원에서 여성 계몽운동과 항일독립운동에 헌신한 남자현 지사의 삶을 살펴본 뒤 청송 항일의병기념공원을 찾아 청송의진을 비롯한 전국 의병의 항일투쟁을 되새겼다.

안동에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초대 국무령 석주 이상룡 선생의 생가인 임청각을 방문해 한 가문에서 여러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역사를 살펴봤다. 둘째 날에는 이옥사문화관과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내앞마을을 찾아 경북 독립운동의 흐름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

영양군, 서울광장서 맛·멋 알린다

27일부터 사흘간 고추축제 개최

영양군이 서울광장에서 영양의 농특산물과 전통문화 그리고 관광자원을 한꺼번에 알리는 행사를 개최한다. 8월 27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2026 영양고추 H.O.T Festival’이 농산물 판매 중심의 행사를 넘어 영양을 종합적으로 소개하는 장으로 마련되면서 서울 시민들의 지역 인지도 확대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축제 기간 서울광장에서는 영양고추와 고춧가루 등 주요 농특산물을 생산농가와 지역 농협 및 가공업체를 통해 직접 만나볼 수 있다. 참여 생산자들이 산지에서 마련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선보이는 방식으로 운영돼 품질을 확인한 뒤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판매 공간과 함께 영양의 역사와 전통을 알리는 홍보관도 운영된다. 조선시대 한글 조리서인 『음식디미방』을 소개

하는 공간을 비롯해 지역 관광자원과 문화 콘텐츠를 다루는 전시 공간이 마련돼 영양의 자연과 문화적 자원을 서울에서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축제장 가운데에는 영양고추를 소재로 한 테마 공간이 들어선다. 시민 참여형 체험과 이벤트도 함께 마련돼 가족방문객과 서울을 찾은 관광객이 행사장을 둘러보며 영양의 특색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영양군은 농특산물 판매와 지역 홍보를 결합해 행사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농산물의 판로 확대에 그치지 않고 문화와 관광을 함께 소개해 영양을 다시 찾고 싶은 지역으로 알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서울 시민들이 행사장을 찾는 동안 영양의 다양한 매력을 직접 느끼고 즐길 수 있도록 알차게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전주, 호주서 K-소비재 판로 확대

지역 제조 중소기업 8곳 모집

전북 전주시가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호주 멜버른에 무역사절단을 파견한다.

시는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과 함께 오는 25일까지 ‘2026 전주 K-프리미엄 소비재 호주 무역사절단’에 참여할 전주지역 제조 중소기업 8곳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한류박람회 멜버른 쇼그라운드에서 1만㎡ 규모로 열리는 한류·소비재 행사로, 기업 간 B2B 수출 상담과 소비자 대상 B2C 전시관측은 물론 한류 체험과 공연·이벤트가 함께 진행된다.

무역사절단은 11월 3~9일 호주 멜버

른에 파견되며, 산업통상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개최하는 ‘2026 멜버른 한류박람회(KBEE 2026)’와 연계해 운영된다. 참여 기업들은 11월 5~6일 현지 바이어와 1대1 수출 상담을 진행하고, 6~7일에는 ‘전주 K-소비재 공동 쇼케이스관’에서 현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품을 선보인다.

시는 참가 기업을 대상으로 현지 유망 바이어 발굴·매칭과 상담 통역, 상담장임차료, 항공료 일부 등을 지원한다.

또 화장품과 생활용품 등 품목별 호주 현지 규제 요건을 사전에 점검하고 행사 이후에도 샘플 발송과 계약 협의, 수출 이행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주(전북)=조계철 기자 chonho89@

“AI가 딱 맞는 상품 알려드려요” 이커머스업계, 쇼핑혁신 가속화

주요 플랫폼, 독자적 AI 기술 적용

11번가 상품군 종합 분석·추천
쿠팡 리뷰 요약 등 피로도 줄여
네이버 대화형 에이전트 전면에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이커머스의 쇼핑 방식을 바꾸고 있다. 소비자가 일일이 검색어를 입력하고 수많은 상품 페이지를 비교하던 수동적 탐색 방식에서 벗어나, AI가 사용자의 맥락과 의도를 파악해 맞춤형 상품을 선제적으로 제안하는 ‘발견형 및 대화형 커머스’로 진화하는 양상이다. 주요 플랫폼들은 저마다 독자적인 AI 기술을 적용해 고객 체류 시간을 늘리고 구매전환율을 극대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1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커머스 업계는 쇼핑 검색 시스템에 AI를 접목해 초(超)개인화를 지향하고 있다.

11번가는 최근 고객이 특정 조건을 손쉽게 탐색할 수 있는 ‘AI 검색’을 도입했다. 검색창에 상품군을 입력하면 주요 기능과 용도에 따른 세분화 키워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선택하면 가격과 배송 속도, 리뷰 등을 종합 분석해 최적화된 상품을 즉시 추천하는 구조다. ‘집들이에 어울리는 선물’이나 ‘30대 여성 여름 원피스’처럼 일상적 상황을 조합한 검색도 지원한다. 이러한 편의성에 힘입어 도입 첫 달

AI 검색의 구매전환율은 기존 통합검색 대비 2배 이상을 기록하며 실제 구매 연결 효과를 입증했다.

쿠팡은 상세 정보 분석과 시각화에 집중했다. 복잡한 상품 스펙을 요약해주는 ‘상품 한눈에 보기’와 핵심 장점을 즉시 노출하는 ‘상품 하이라이트’를 선보였으며, 대형 가전 등 비교 요소가 많은 상품군에는 스펙을 직관적인 그래픽으로 변환하는 ‘AI 인포그래픽’을 적용했다. 여기에 수많은 후기 중 긍정·부정 요소를 추려내는 리뷰 요약과 사용자가 탐색 중인 상품의 대안을 자동으로 분석해 보여주는 ‘AI 상품 비교’ 기능까지 결합해 고객의 탐색 피로도를 크게 줄였다.

네이버는 알고리즘 개편과 대화형 에이전트를 앞세워 생태계 확장에 나섰다. 통합검색 내 광고상품 고정 지면을 축소하고 이용자 반응과 연관성에 따라 일반 상품 노출을 늘리는 실시간 최적화 방식을 적용해 상품 본연의 경쟁력을 부각했다. 아울러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를 통해 선보인 ‘AI 쇼핑 에이전트’는 사용자의 장바구니 및 검색 이력을 바탕으로 먼저 말을 건네며 탐색 방향을 이끄는 단계로 진화했다. 그 결과 네플러스 앱의 방문자당 구매 횟수와 구매전환율은 기존 서비스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으며, 단골 중심의 정기구독 생태계 역시 동반 성장하고

있다.

외부 거대언어모델(LLM)과의 데이터 연동 모델도 등장했다. 가격비교 플랫폼 다나와는 엔트로픽의 ‘글로벌’과 연동되는 ‘다나와 MCP’ 서비스를 개시했다. 글로벌 대화창에서 자연어로 조건에 맞는 상품과 구매처를 질의하면, 다나와가 실시간으로 수집·가공한 14억 개 상품 DB와 가격 정보를 호출해 최적의 선택지를 안내한다. 이는 AI 플랫폼과 이커머스 데이터 허브가 직접 결합한 대표적 협업 사례로 평가받는다.

이러한 플랫폼의 기술 고도화는 소비자의 실제 구매 행태 변화와 맞물려 있다. 프레인글로벌과 한국PR학회 조사에 따르면, 생성형 AI 이용 경험자의 49.9%가 AI 추천을 통한 구매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향후 구매 결정 과정에서 AI를 활용하겠다는 응답도 54%로 나타났다.

구매 과정은 기존 ‘검색-비교-결정’에서 ‘검색-질문-추천-검증-위임’의 순환 구조로 재편되는 추세다. 다만 응답자의 71.1%가 AI 추천 결과를 별도 검색으로 재확인한다고 응답해, 향후 커머스 시장에서는 단순한 기술 적용을 넘어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 경쟁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metro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왼쪽)와 썬레이그룹 라탄 레이 굽타(Rattan Ray Gupta) CEO가 외식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있다. /더본코리아

더본코리아, 북미 외식·소스시장 본격 진출

현지기업 협력 확대… 신제품 개발

더본코리아가 캐나다와 미국에서 외식 브랜드 출점과 소스 현지 생산·유통 확대에 나선다. 지난해 공개한 글로벌 사업 전략을 실제 매장 운영과 제품 공급으로 구체화하는 모습이다.

더본코리아는 백종원 대표가 북미 출장 중 캐나다 호텔·부동산 기업 썬레이그룹과 외식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양사는 썬레이그룹이 토론토 광역권 마컴 지역에서 운영하는 매장을 더본코리아 브랜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브랜드와 운영 방식은 협의 중이다.

추가 출점도 검토한다. 마컴 매장을 시작으로 썬레이그룹이 보유한 호텔과 상업시설에 더본코리아 브랜드를 확대하는 방식이다. 개별 가맹점 모집보다 현지기업의 기존 사업망을 활용해 매장을 늘리는 전략이다.

캐나다에서는 TBK 소스 유통 확대도 추진한다. 백 대표는 현지 한인 식품 유통 기업과 마트 내 더본코리아 제품 기획전, 푸드코트 팝업스토어, TBK 소스를 활용한 메뉴 개발 등을 논의했다. 또 대형 식품 유통기업과는 TBK 소스의 현지 공급과 판매 확대 방안을 협의했다.

미국에서는 글로벌 식품기업의 현지 생산시설을 활용해 홍콩반점 B2B 소스를 생산할 계획이다. 첫 생산 품목은 탕수육 소스로, 이후 다른 외식 브랜드용 소스로 생산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내에서 제품을 수출하는 대신 미국에서 생산해 북미 시장과 유통망에 공급하는 구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북미 소비자를 겨냥한 가정간편식(HMR) 공동개발도 추진한다. 현지 소비자 취향을 반영한 제품을 개발하고 협력사의 생산·유통망을 활용해 일반 소비자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넓힌다는 구상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롯데마트·슈퍼, 샤인머스켓 ‘고품질’ 차별화

재배부터 입고까지 전 과정 관리
15브릭스 이상 원물만 매장 입고

롯데마트·슈퍼가 ‘완벽한 품질’로 샤인머스켓 소비자 신뢰 회복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샤인머스켓은 재배 농가와 생산량이 단기간에 늘면서 공급과잉과 소비 침체를 겪고 있다. 소비 침체의 주요 원인으로는 상품 조기 수확·유통에 따른 저당도 원물의 유통으로 인한 품질 편차 등이 꼽힌다.

이에 롯데마트·슈퍼는 샤인머스켓 소비 회복을 위해 산지 재배부터 매장 입고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철저한 품질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먼저 모든 물량은 재배 밭 단위로 파트너사와 사전 계약해 운영한다. 생산 단계부터 원물의 품질을 관리하는 구조다. 운영 파트너사도 5년 전 6개에서 현재 3개로 압축해 개별 산지에 대한 관리 밀도를



롯데마트 제타플러스점 잡실점 샤인머스켓 매대 전경. /롯데마트

높였다.

재배 과정에서는 조기 수확을 전면 차단한다. 생육 기간 동안 매주 비파과 당도 측정 기록을 확인하며, 사전 설정한 재배일수와 당도 기준을 충족한 원물만 수확한다. 후숙으로 당도가 높아지지 않는 샤인머스켓 특성을 반영해 나무에서 충분한 숙기를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산지 현장 점검도 병행한다. 롯데마트·슈퍼는 전국 주요 신선식품 산지에서 근무하는 ‘인스펙션 MD’를 운영해 현장에서 상품을 밀착 관리하고 있다. 해당 MD는 김천, 영동 등 샤인머스켓 파트너사를 수시로 방문해 포도알 크기와 송이당 중량, 당도 등 상품의 내·외부 품질을 확인한다. 선별과 포장이 이뤄지는 작업장 환경까지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수확 이후에는 전체 물량을 대상으로 100% 비파과 당도 선별을 진행해 15브릭스 이상의 자체 기준을 충족한 원물만 매장에 입고한다. 이를 통해 전 점포에서 편차 없이 균일한 맛과 품질의 상품을 선보인다.

이 같은 품질 관리 전략은 실질적인 판매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7~9월 롯데마트·슈퍼 샤인머스켓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10% 가량 증가했으며, 본격적인 시즌이 시작된 올해 7월 한 달간 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20% 이상 늘었다. /김서현 기자

팔도·hy ‘아리’, 일본·캐나다 시장 진출

〈식음료 브랜드〉

세븐일레븐·로블로 그룹 입점

팔도와 hy가 공동 기획한 글로벌 식음료 브랜드 ‘아리(ARI)’가 일본과 캐나다 시장에 진출한다. 미국과 한국에서 제품을 선보인 데 이어 일본·캐나다 주요 유통채널에 입점하며 해외 시장 확대에 속

도를 내는 모습이다.

아리는 일본 세븐일레븐과 캐나다 로블로 그룹에 각각 입점한다.

일본 세븐일레븐은 현지 2만2000여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어 전국 단위 소비자 접점 확보가 가능하다.

캐나다에서는 현지 대형 유통기업 로

블로 그룹의 판매망을 활용해 북미 시장 내 입지를 넓힌다는 전략이다.

아리는 ‘모던 밸런스 푸드’를 표방하며 모던 누들, 포스트바이오틱 에너지 드링크, 듀얼 바이오티크 소다 등으로 제품군을 구성하고 있다.

팔도와 hy는 일본·캐나다를 시작으로 남미와 동남아 등으로 판매망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신원선 기자

서울식품공업, 상반기 영업이익 흑자전환

하반기 수익성 중심 경영기조 지속

서울식품공업이 저마진 품목을 정리하고 원가 절감에 나선 결과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의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매출 규모는 줄었지만 수익성 개선에 초점을 맞추면서 손익 구조를 개선했다.

서울식품공업이 지난 14일 공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318억9000만원으로 전년 동기 346억2000만원보다 7.9% 감소했다. 반면 영업이익은 1억216만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4억8253만원 영업손실에서 흑자로 돌아섰다.

순손실 규모도 축소됐다. 상반기 당기 순손실은 4억2160만원으로 전년 동기 11억3762만원에서 약 7억1600만원 줄었

다. 특히 2분기에는 매출 168억4000만원, 영업이익 2억2411만원을 기록했으며 당기순이익도 6334만원으로 흑자전환했다.

수익성 개선은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를 줄인 영향이 컸다. 상반기 매출원가는 250억4000만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약 30억원 감소했으며 판매비도 3억1800만원 가량 줄었다. 여기에 상반기 판매단가 인상 효과가 더해지면서 제품 이익률이 개선됐다.

서울식품공업은 하반기에도 수익성 중심의 경영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저마진 품목을 추가로 조정하는 한편 고부가가치 제품과 핵심 B2B·온라인 채널을 확대해 실적 개선세를 이어갈 계획이다. /신원선 기자

현대홈쇼핑, ‘TOPS 프로그램’ 2단계 돌입

참여 소상공인 60개사 선정

현대홈쇼핑은 소상공인 육성사업 ‘TOPS 프로그램’ 2단계 참여 뷰티 소상공인 60개사를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TOPS 프로그램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중소벤처기업유동원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현대홈쇼핑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주요 사업자로 참여하고 있다.

현대홈쇼핑은 이번 2단계에 선발된 60개사에 오는 10월까지 상품 개발 지원과 라이브커머스 진행, 자체 오프라인 뷰티 편집숍 ‘코아시스(Coasis)’ 입점 등 다방면의 지원책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뷰티

OEM 업체와의 네트워킹 행사, 실무 강연 등으로 구성된 ‘비즈니스 데이’를 개최해 실질적인 브랜드 역량 강화도 돕는다.

앞서 현대홈쇼핑은 지난 4월 TOPS 프로그램 1단계 사업을 진행해 뷰티 소상공인 300개사를 대상으로 전문 MD 컨설팅과 현대홈쇼핑 특별 기획전 등을 지원했다.

나아가 2단계 참여 기업 중 최우수 브랜드 3곳을 선정해 오는 11월부터 12월까지 TV라이브 홈쇼핑 방송 진행 뿐만 아니라, 해외 팝업스토어 운영과 현지 홍보까지 지원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3단계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김서현 기자

美 'KCON LA' 참가

CJ제일제당, 비비고 체험 마케팅 1만명 방문에 시식제품 조기 소진

美 소비자 대상 K푸드 체험 확대
김치·매운맛 등 한국 대표 맛 소개
알파드라이브원 협업 테마존 운영
미니완톤·김치라면 등 시식 진행
현지 인플루언서 연계 홍보 강화

CJ제일제당의 비비고가 미국 K팝 팬을 대상으로 현지 소비자 접점 확대에 나섰다. K팝과 K푸드를 결합한 체험형 마케팅을 통해 미국 시장에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전략이다.

CJ제일제당은 지난 14~16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KCON LA 2026'에 비비고 체험 부스를 운영했다고 18일 밝혔다. 부스는 김치, 단짠, 매콤달달, 매운맛 등 한국 음식의 대표적인 맛을 주제로 구성했다. 방문객들이 게임과 시식을 통해 K푸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글로벌 브랜드 앰배서더인 K팝 그룹 '알파드라이브원(Alpha Drive On E)'과 협업한 테마존도 마련했다. 모션 게임을 비롯해 비비고 미니완톤, 스파이시 김치라면, K-소스 3종 등의 시식 프



KCON LA 2026_에 마련된 비비고 부스 앞에서 관람객들이 다양한 포즈를 취하고 있다. /CJ제일제당

로그램을 운영했다. 행사 기간 부스를 찾은 방문객은 1만명을 넘어섰으며 준비한 시식 제품도 조기에 소진됐다.

CJ제일제당은 미국 현지 인플루언서들과 협업해 행사 현장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확산하는 데도 나섰다. 비비고는 미국에서 만두와 김치, 소스 등을 중심으로 제품군을 확대하고 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이번 KCON

을 통해 글로벌 소비자들에게 대표 K-푸드로서 비비고만의 차별화된 맛과 경험을 전달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K-컬처와 연계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통해 글로벌 소비자 접점을 확대하고 대표 K-푸드 브랜드로서 비비고 입지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metr

“강남·명동·홍대 美 현지에 옮겨” CJ올리브영, K-뷰티 페스타 흥행

미국 입점 55개 브랜드 한자리
1422평 행사장에 관람객 10만명
중소·인디 브랜드 소비자 접점 확대

올리브영의 K뷰티 페스타가 미국 서부를 뜨겁게 달궜다. CJ올리브영은 지난 14일부터 16일(현지시간)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올리브영 페스타 LA 2026'을 개최해 10만명의 관람객을 모았다고 18일 밝혔다.

KCON LA 2026과 연계해 열린 이번 행사는 1422평 규모의 행사장에 미국 올리브영 매장에 입점한 K뷰티·라이프스타일 브랜드 55개가 참여했다.

행사는 강남, 성수, 명동, 홍대 등 서울 주요 K뷰티 거리를 재현했다. 한글 도로표지판과 버스정류장 등으로 꾸며진 공간에서 관람객들은 서울 거리를 체험했다. 행사장 중앙 '올리브영 스토어'에서는 더블클렌징 패드·세럼·선크어순으로 큐레이션된 스킨케어 제품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퍼스널 컬러 진단 서비스 '마이 컬러 바이브'와 피부 상태 진단 서비스 '스킨스캔' 등도 운영했다. 브랜드들은 자체 부스에서 제품 시연과 체험형 강연 프로그램 '뷰티&웰스 딥 다이브'를 통해 현지 소비자와 직



올리브영 페스타 LA 2026 현장에서 현지 고객들이 페스타를 즐기고 있는 모습. /CJ올리브영

접 소통했다. 조용훈 바이트랩 대표는 "브랜드사가 실제 고객, 특히 미국 고객을 만날 기회가 많지 않은데 페스타를 통해 고객을 대면하고 우리 브랜드의 인지 경로나 관심을 확인할 수 있어 좋았다"며 "올리브영 페스타 덕분에 효율적으로 현지 고객과 접점을 넓힐 수 있었다"고 전했다.

CJ올리브영은 산업통상부·KOTRA의 '유통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번 행사가 중소·인디 뷰티 브랜드의 글로벌 성장을 지원하는 플랫폼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김수정 수습기자 kcrystal@



metr

마뽕김, K-패션 앞세워 아프리카로 영토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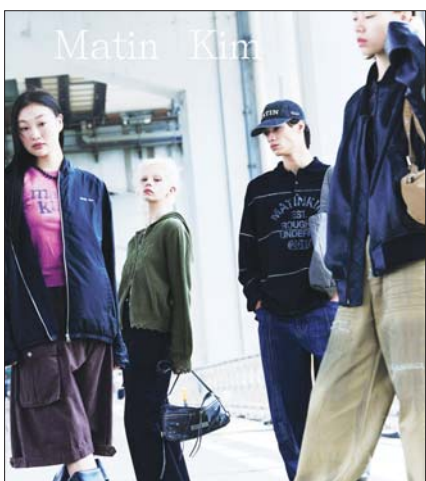
10월 중국·베트남 각각 1호점 개장
하반기 국내 패션 최초 세네갈 진출
해외 매장 26개로 글로벌 접점 확대

마뽕김이 중국, 베트남, 세네갈에 잇달아 매장을 열며 해외 시장 지평을 넓히고 있다.

마뽕김은 오는 10월 중국과 베트남에 각각 1호점을 열고 하반기에는 국내 패션 브랜드 최초로 세네갈에 진출한다고 18일 밝혔다. 아시아 중심의 사업 영역을 아프리카까지 확장해 해외 접점을 늘린다는 구상이다.

지난달 기준 마뽕김의 해외 매장은 26개다. 마뽕김은 2024년 10월 홍콩을 시작으로 대만과 마카오에 매장을 열었다. 지난해 일본·태국·불가리아에 이어 올해 5월 몽골까지 진출했다.

마뽕김은 국가별 상품 전략을 세분화하



마뽕김은 오는 10월 중국과 베트남에 각각 1호점을 열고 하반기에는 국내 패션 브랜드 최초로 세네갈에 진출한다고 18일 밝혔다. /마뽕김

고 있다. 중국에서는 신상품과 국내 스테디셀러 위주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10월 개장 시기에 맞춰 베이징·상하이 한정 모자 출시도 검토하고 있다.

베트남에서는 브랜드 로고를 전면에 내세운 제품과 현지 기후에 맞는 가벼운 소재의 의류를 주력으로 내세우고 있다. 데님 모자, 포켓백 등 잡화 군도 선보인다.

첫 아프리카 진출지인 세네갈에서는 편집형 형태의 매장을 공개할 예정이다. 반팔 티셔츠, 가벼운 외투 위주로 상품군을 구성하고 현지 반응을 살펴 사이즈와 실루엣을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하교하우스 관계자는 "마뽕김은 해외 고객들의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아시아를 넘어 새로운 시장까지 활동 무대를 빠르게 넓혀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각 시장에서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며 K-패션을 대표하는 글로벌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외 사업을 적극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정 수습기자

애경산업 “냄새 잡는 베이킹소다 캡슐세제”

‘스냅이지 베이킹소다 캡슐세제’ 선풍
세척력 30% 향상·생활악취 제거

애경산업이 다목적 세정제 브랜드 엄마의 선택에서 ‘스냅이지 베이킹소다 캡슐세제’를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세탁 보조제로 베이킹소다를 계량하지 않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평소 사용하는 세탁세제와 함께 캡슐 한 알만 넣으면 된다. 캡슐 1개는 15g으로 정량 설계됐고, 분말 형태의 베이킹소다 사용 시 발생하는 가루 흩날림 등 불편함을 줄였다.

애경산업에 따르면 자사 세탁세제 단독 사용 대비 병용 사용 시 세척력을 약 30%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100% 베이킹소다 제품인 것도 특징이다. 탄산수소나트륨 단일 성분을 처방했다. 또 약알칼리성 성분으로 산



엄마의선택 ‘스냅이지 베이킹소다 캡슐세제’ /애경산업

성 물질을 중화하는 기전을 갖춰 땀 냄새, 발 냄새 등 생활 악취를 제거할 수 있다. 끝없는 젖은 수건 냄새와 세탁 후 남기 쉬운 냄새도 효과적으로 없앤다. 인공 향료는 첨가하지 않았다.

/김수정 인턴기자

코스맥스, 방사광가속기로 K-뷰티 고도화

포항가속기연구소와 화장품 개발 협력
피부전달체서 색소·모발 연구로 확대

코스맥스가 첨단 과학 인프라를 등에 업고 K뷰티 기술 고도화에 나선다. 코스맥스는 포항가속기연구소(PAL)와 첨단 과학기술 인프라를 활용한 화장품 개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협약식은 지난 14일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항가속기연구소에서 열렸다. 이경수 코스맥스그룹 회장과 김재영 포항가속기연구소 소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포항가속기연구소가 운영하는 포

항방사광가속기(PLS-II)는 태양광보다 100억 배 이상 밝은 빛으로 나노 수준 물질 구조를 원자 단위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연구 인프라다. 1995년 개방 이후 30년간 국내외 연구자 약 10만 명, 연구 과제 2만 8000건 이상을 지원했고 SCI급 논문 1만 1000편 이상을 배출했다.

그동안 코스맥스는 이 방사광가속기를 활용해 리포좀, 지질나노입자, 액정에멀전 등 피부전달체 분야 기술을 쌓아왔다. 코스맥스에 따르면 2021년 약 60억원이던 피부전달체 매출은 올해 약 1000억원까지 성장할 전망이다. 관련 기술력은 2021년

과 2024년 두 차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영실상 수상으로도 입증됐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협력 범위를 기초 화장품에서 자외선 차단제, 색소 화장품, 모발 제품으로 확대한다. 주요 연구 과제는 ▲리포좀 등 피부전달체 나노 구조 연구 ▲자외선 차단제·색소 화장품 적용 후 피부 및 화장품 구조 변화 연구 ▲모발 구조 연구 ▲화장품 소재 구조 연구 등 네 가지다.

이경수 코스맥스그룹 회장은 “방사광가속기 첨단 연구를 화장품 분야에 적용해 K뷰티의 과학적 토대를 탄탄히 마련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K뷰티 프리미엄 이미지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수정 수습기자

바이오협회, 정부 ‘첨단바이오’ 전략 환영

AI·바이오 융합 R&D 혁신 기대

한국바이오협회가 지난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한 ‘미래성장동력 7대 SEED’ 중 ‘첨단바이오’ 육성 전략과 인프라 투자 계획에 대해 전폭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600여 개 회원사를 대표하는 한국바이오협회는 이번 발표가 국내 바이오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극대화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바이오협회는 18일 환영문을 통해 특히 인공지능과 바이오의 융합을 기반으

로 한 연구개발(R&D) 혁신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협회는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추진하는 암 특화 인공지능(AI) 모델, 자율실�험실, 바이오파운드리 구축은 개발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이 시급한 바이오 기업들에게 가시적 단비가 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차세대 바이오 시장의 핵심인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기술 육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이 이어졌다. 오는 2035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는 BCI 원천기술 개발은 기존 헬스케어 산업의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이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창업상담 | 1644-0622



으뜸스시
Sushi Saikō

고객이 먼저
찾는 스시,
창업자가
다시 보는 브랜드

8/19 (수) 39호점,
으뜸스시 제주연북로점 오픈!



2,200원
균일가

가성비 & 가심비
모두 만족



100가지
이상 메뉴

남녀노소, 가족 모두
만족하는 메뉴 구성



당일 작업 및
당일 판매

참치·활어 중심의
신선한 메뉴



서울 및 전국
창업

자동화 시스템으로
초보 창업자도 가능



KB국민은행, 김앤장과 상속 금융 상호협력 MOU

KB국민은행은 지난 14일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함께 '상속 금융 비즈니스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 참여한 김용대 김앤장 법률사무소 가사상속·기업승계센터장(왼쪽)과 이윤석 KB국민은행 WM추진본부 상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B국민은행



카카오, 비수도권 청소년 AI 인재 육성 '앞장'

카카오가 비수도권 청소년의 인공지능(AI)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미래 AI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4일 경기도 용인시 카카오 AI 캠퍼스에서 '카카오 AI 루키 캠프' 2기 수료식을 진행했다. 카카오 정신이 대표(왼쪽 세번째)가 '카카오 AI 루키캠프' 2기 수상 팀과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카카오



한유원, 열무김치 250kg 담가 취약계층에 나눔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 서울 양천구 신월5동 주민센터에서 열무김치 만들기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지역사회와 나눔을 실천했다. 18일 한유원에 따르면 임직원들은 취약계층에 전달할 열무김치 250kg를 직접 만들고 포장했다. 특히 신입직원들과 멘토 직원까지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완성된 김치는 신월5동의 취약계층 100가구에 전달했다. /한유원



알에프바이오, '유스필' 앞세워 동남아 시장 공략

메디컬 에스테틱 기업 알에프바이오가 히알루론산 필러 '유스필'을 앞세워 동남아시아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알에프바이오는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KLCC)에서 열린 'AMSC 말레이시아 2026'에 참가했다고 18일 밝혔다. /알에프바이오

노사발전재단

퇴직 중장년, '멘탈 코치' 변신

퇴직한 중장년층이 청년 대학생들의 학업 원주와 진로 설계를 돕는 '멘탈 코치'로 나선다.

노사발전재단 서울지사는 18일 한국폴리텍대학 서울강서캠퍼스, (사)한국고치협회와 함께 폴리텍 재학생 대상 '중장년 멘탈코치'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고학력 및 숙련된 현장 경험을 보유한 2차 베이비부머 등 퇴직 중장년에게 전문 상담사라는 새로운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 학생들의 학업 중단 예방과 취업 적응을 돕기 위해 추진됐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삼성전자, 클림트·베르메르 명작 43점 TV로 만난다

빈 미술사 박물관과 손잡고 삼성 아트 스토어에서 선보

삼성전자가 오스트리아 빈 미술사 박물관의 대표 소장품을 삼성 아트 스토어에 추가하며 글로벌 미술 콘텐츠 확대에 나선다. 삼성 TV를 통해 세계적인 미술관의 작품을 집에서도 감상할 수 있도록 해 예술 콘텐츠 접근성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삼성전자는 빈 미술사 박물관의 대표 소장품 43점을 삼성 아트 스토어에 선보인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대표 작품으로는 ▲피터르 브뤼헐 1세의 '바벨탑' ▲요하네스 베르메르의 '회화의 예술' ▲구스타프 클림트의 '누다 베리타스'가 있다.

이 밖에도 카날레토와 베르나르도 벨로토가 베네치아와 빈을 담은 난상 정적인 풍경화와 주세페 아르침볼도의 '여름'을 비롯해 루벤스, 벨라스케스,



삼성 아트 스토어를 통해 오스트리아 '빈 미술사 박물관'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다. /삼성전자

카라바조, 티치아노, 렘브란트, 라파엘로 등 거장들의 명작을 만나볼 수 있다.

삼성전자는 원작의 감동을 고스란히 전달하기 위해 미술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고화질 작품에 삼성전자의 독자적인 디스플레이 기술인 무반사 기

술을 결합해 완벽한 시각적 경험을 제공한다.

삼성 TV 이용자들은 화면 표면에 특수 코팅으로 빛을 다양한 각도와 방향으로 분산시키는 무반사 기술을 통해 밝은 햇빛이 들어오거나 조명을 켜 환경에서도 빛 반사 없이 선명한 화질

기업들, 광복절 '815런' 함께 달렸다

한국엔컴퍼니·동국제강·GS칼텍스 마라톤 후원으로 유공자 후손 지원

국내 기업들이 광복절을 맞아 진행된 '2026 815런'에 적극적으로 후원에 나서며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있다.

815런은 나라의 빛을 찾은 광복절의 의미와 독립유공자에 대한 감사함을 되새기고, 독립유공자 후손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부터 매년 광복절에 개최되는 기부 마라톤 캠페인이다. 참가비와 기업 후원금 전액은 독립유공자 후손의 안락한 보급 자리를 마련하는 데 사용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엔컴퍼니 그룹과 동국제강그룹 등은 독립유공자 후손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2026 815런'의 후원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엔컴퍼니그룹은 지난 2022년부터 815런을 후원하고 있다. 그룹 통합 ESG 브랜드인 '드라이빙 포워드 투게더' 아래 독립유공자 후손의 주거환경 개선을 비롯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동국제강그룹은 창업정신인 '철강보국'이 캠페인 취지와 맞닿아 있다고 판단해 2024년부터 후원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는 후원금 815만원과 임직



'2026 815런'에 참여한 동국제강그룹 임직원 단체사진.

원 및 가족 230명의 참가비 1245만원을 합쳐 총 2060만원을 한국해비타트에 전달했다

GS칼텍스는 2021년부터 6년 연속 후원을 이어가고 있으며 올해는 GS칼텍스 임직원과 가족 총 300명도 직접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GS칼텍스는

2019년에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윤봉길·한용운·백범 김구·윤동주·안중근 등 독립운동가 5인의 실제 필체를 현대적으로 복원한 '독립서체'를 개발하고,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배포하기도 했다. /양성운 기자 ysw@

소진공, 소상공인 정신건강 안전망 구축

자살 예방 교육 등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협력해 정신 건강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생명안전망 구축 활동에 본격 나선다.

28일 소진공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최근 경기침체와 매출 감소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심리·정서적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특히 자살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50대 남성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생명존중과 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소진공과 생명존중희망재단은 소상공인이 일상에서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기반의 생명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한다.

먼저 소상공인지원센터와 자살예방센터 간 1대1 매칭을 기존 35개에서 61개(71.4% ↑)로 대폭 확대했다. 양기관은 상호 긴밀히 협력해 ▲고위험군 발굴·개입·연계 ▲자살 예방 인식개선 캠페인 ▲자살 예방 교육 ▲맞춤형 서비스 지원 ▲자살 위험 수단 차단 등 지역 밀착형 생명지킴이 활동을 추진한다.

또한 공단 지역센터 우울증 선별검사 도구인 'PHQ-9'을 비치해 소상공인이 자신의 정신건강 상태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승호 기자 bada@



씨젠의료재단은 지난 10일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본원에서 중앙아시아 바이오테크놀로지 협회(CABA), 오픈헬스케어와 건강검진 및 진단검사 분야 협력 확대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천중기 이사장을 비롯한 씨젠의료재단 관계자들과 카자흐스탄 대통령실 방문단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씨젠의료재단

씨젠의료재단, 카자흐 건강검진시장 진출

알마티 코리안 메디컬센터 역량 지원

에르갈리 압두라이모프 카즈바이오파마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오픈헬스케어가 운영하는 알마티 코리안 메디컬센터(KMCA)를 현지 공식 건강검진센터로 키우는 데 씨젠의료재단이 기술 지원을 맡는 구조다. 진단검사 표준화와 품질관리 체계를 이식하고 의료인력 교육까지 지원해 카자흐스탄 주민들의 검진 접근성을 높일겠다는 구상이다. 카자흐스탄 방문단은 이날 씨젠의료재단의 감염검사, 분자진단검사, 병리검사 등 실제 검사시설을 둘러보며 운영 체계를 점검했다.

씨젠의료재단은 지난 10일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본원에서 중앙아시아 바이오테크놀로지 협회(CABA), 오픈헬스케어와 건강검진 및 진단검사 분야 협력 확대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천중기 이사장을 비롯해 한규섭 대표의료원장, 장세진 대표병원장, 이민철 오픈헬스케어 대표와 카자흐스탄 측 알렉세이 초이 대통령 사회담당 보좌관, 카말잔 나디로프 CABA 회장, 다르한 투르리베코프 대통령실 사회경제정책부 컨설턴트,

에르갈리 압두라이모프 카즈바이오파마사 등이 참석했다.

앞서 씨젠의료재단은 2023년 알마티시와 첫 협력 논의를 시작한 이후 해외 진출을 위한 자회사 오픈헬스케어를 설립했다. /김수정 수습기자 kcrystal@

인사 ◆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 전보 △체육국 스포츠산업과장 이동준
◆재정경제부 ◇과장급 △공공정책국장 이상윤 ◇과장급 △디지털금융과장 이운호
◆보건복지부 ◇과장급 전보 △아동보호자립과장 구미정
◆지식재산처 ◇과장급 전보 △지능형로봇심사과장 양기성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수상임이사 서경숙
◆한국원자력의학원 △기획조정실장 장원일

◆교보증권 ◇본부장 선임 ▲헤지펀드 운용본부 홍성진
◆경향신문 ▲광고국 광고1팀장 박정욱 ▲광고국 광고2팀장 김남호 ▲광고국 광고3팀장 강태영
◆비즈니스플러스 ▲편집국 부국장 겸 금융증권부장 하진수
◆아주경제 ▲사회부장 조해수
| 부음 ▲윤순임(만 71세)씨 별세, 김준호(현대해상 기업보험 2부장)씨 모친상 = 16일,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19일 오전 06시, (02) 2072-2010

“ K-힐링 편의점 이야기 ”

뮤직 드라마

불편한 편의점 2

Always

2026.4.1 - OPEN RUN 후암씨어터

원작 김호연 불편한 편의점2 (나무옆의자 2022) | 총괄 프로듀서 황기현 | 각색·작사 박예슬 | 연출 승운 | 작곡·음악감독 서진영 | 무대디자인 주미영
조명디자인 정필균 | 음향디자인 안형록 | 무대제작 드림아트컴퍼니(주) | 제작PD 박민서

주최·주관 극단 지우 | 기획 (주)지우컴퍼니 (주)제이엘컬처 | 후원 나무옆의자 출판사 waterfallstory | 예매처 NOLticket 티켓링크 | 문의 02-332-4902

인공지능 시대의 개인정보 활용



박 상 오 변호사의
콘텐츠 법률 산책

요즘 우리는 궁금한 것이 생기면 검색창 대신 인공지능에게 먼저 물어본다. 그런데 인공지능이 그럴듯한 답변을 내놓기까지의 과정을 들여다보면 결국 ‘데이터’가 있다. 인공지능은 인터넷에 공개된 게시물, 뉴스 기사, 사진과 영상 등 방대한 자료를 학습하는데, 그 안에는 개인의 이름, 얼굴, 직업, 연락처와 같은 개인정보가 섞여 있는 경우도 많다. 이용자가 인공지능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대화창에 입력하는 문장 역시 마찬가지로 ‘제 아이가 몇 살인데 어떤 학원이 좋을까요’라는 질문 한 줄에도 개인정보가 담긴다.

현재 시행 중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약칭은 ‘인공지능 기본법’)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에 사용되는 데이터를 ‘학습용데이터’로 정의하고 그 구축·관리에 관한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해 두고 있다. 다만, 인공지능기본법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자체를 직접 규율하는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관한 대부분의 문제는 여전히 개인정보 보호법을 살



/유투이미지

펴보아야 한다.

주체별로 먼저 사업자 측면을 살펴보면, 인공지능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법령 공개된 개인정보라고 하더라도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수집·이용에 주의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해 8월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를 통하여 공개된 개인정보를 학습에 이용하려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의 ‘정당한 이익’이 인정되어야 하고 목적의 정당성, 처리의 필요성, 이익 형량과 함께 안전조치가 갖추어져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여기에 인공지능기본법상의 의무가 더해

진다.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미리 고지하고 결과물에는 인공지능으로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하며(제31조), 사람의 생명·신체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험관리방안 수립, 설명 방안 마련, 사람에 의한 감독 등의 책무를 부담한다(제34조).

이용자 측면에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업무 중 무심코 고객 명단이나 계약서를 대화창에 붙여 넣는 순간 그 행위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이 될 수 있고, 그 책임은 소속 회사에 돌아갈 수 있다. 반대로 이용자에게 주어진 권리도 있는데 인공지능에 의한 자동화된 결정이 자신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을 거부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

인공지능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인간의 사회·경제생활의 주요 전제가 되어 가고 있다. 사업자는 학습 단계에서부터 적합한 근거와 안전조치를 문서로 남겨 두고, 이용자는 자신이 입력하는 정보가 어디까지 쓰이는지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것이다.

/법무법인 바른

3000만원 넘는 아반떼 하이브리드… 기술로 설득해야



기자 수첩
양 성 운
(산업부)

“좋아진 만큼 비싸진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가격 인상인가.”

현대차가 6년 만에 선보인 8세대 아반떼가 출시와 함께 가격 논란의 중심에 섰다. 신형 아반떼의 기술된 모델은 2398만원부터 시작해 최상위 트림이 3152만원이다. 하이브리드는 세계 최대 적용 전 3042만~3699만원에 달한다. 옵션과 세금까지 더하면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실구매 비용은 4000만원을 넘어선다. 준중형 세단이라는 아반떼의 기존 가격 이미지를 생각하면 소비자가 느끼는 심리적 부담은 커졌다.

물론 현대차가 내세운 성능을 보면 가격

인상도 이해가 된다. 차체는 중형 세단급으로 커졌고, 플레오스 커넥트와 첨단 안전·편의사양을 기본 적용했다. 단순히 원가 상승만으로 가격표를 설명할 수 있는 차는 아니다.

문제는 가격이 아니라 가격을 설득할 기술의 수준이다. 3000만원을 넘어선 아반떼 하이브리드를 바라보는 소비자는 이제 단순히 연비와 옵션만 비교하지 않는다. 비슷한 돈으로 살 수 있는 수입 전기차와 중국 전기차, 그리고 테슬라의 소프트웨어 경험까지 함께 저울질한다. 자동차의 가치 기준이 ‘출고 당시 사양’에서 ‘구매 후에도 얼마나 진화하는가’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가 플레오스 커넥트를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과 앱 생태계 등을 통해 차량이 판매 이후에도 진화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가 원하는 것은 차

별화다.

가격은 더욱 까다롭다. BYD는 돌핀을 2450만원부터, 돌핀 액티브를 2920만원, 아토3를 3490만원에 내놓으며 가격 자체를 경쟁력으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최근 BYD가 출시한 PHEV 씨라라인 6DM-i는 한번 충전으로 주행거리 1000km에 육박하지만 가격은 3750만원이다. 아반떼 하이브리드 최상위 트림과 비교하면 국산 준중형 세단의 가격표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아반떼는 탄생과 함께 국민차 타이틀을 이어오며 ‘합리적인 첫차’의 상징이었다.

결국 현대차는 단순히 ‘비싸졌다’를 넘어 비싸진 만큼 무엇이 달라졌고, 3년 뒤에도 왜 이 차의 가치가 남아 있는지를 증명하는게 중요하다.

/ysw@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19일 (음 7월 7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60년생 금전적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72년생 여행을 통해 기다리던 귀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84년생 뜻밖에 행운을 얻게 됩니다.



49년생 대화에 설득력이 있는 하루입니다. 61년생 금전운이 조금 좋지 않습니다. 73년생 후배들을 만나 금전을 지출하게 됩니다. 85년생 감정에 빠지면 큰 돈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50년생 가는 길이 험해 어려움이 따릅니다. 62년생 여행은 마음을 정리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74년생 금전운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86년생 공공기관을 조심하세요.



51년생 아주 귀한 손님이 찾아옵니다. 63년생 매사에 몸조심, 말조심 해야 합니다. 75년생 술자리에서 지나친 과음은 독이 됩니다. 87년생 영화를 보면서 즐거운 하루를 보내세요.



52년생 자신의 매력을 한껏 발휘하도록 하세요. 64년생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일을 결정하도록 하세요. 76년생 부업을 고려해 보세요. 88년생 조그만 인연이 많은 날입니다.



53년생 서쪽과 북쪽 방향에 가지 마세요. 65년생 집 밖에서 좋은 일이 생깁니다. 77년생 주변에 행복한 일이 가득합니다. 89년생 새로운 일을 추진하기 전에 한 번 더 고심하세요.



54년생 가족과 고민을 상의하세요. 66년생 분수를 지켜 객관적으로 생각하세요. 78년생 사업을 하면 큰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90년생 미뤄뒀던 일을 계획해 보세요.



55년생 여행계획이 있으면 당장 떠나세요. 67년생 주위에 신력을 얻어야 합니다. 79년생 다른 사람이 당신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91년생 큰 어려움이 있으니 모든 것에 주의하세요.



56년생 새로운 발상이 많이 나오는 하루입니다. 68년생 집중하기 어려운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80년생 하는 업무에서 두각을 나타내게 됩니다. 92년생 상대방을 조심스럽게 관찰해보세요.



57년생 혼자만의 힘으로 큰 일을 해결합니다. 69년생 여유롭고 평화로운 오후를 보냅니다. 81년생 나태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93년생 사소한 일에 행복감을 느낍니다.



58년생 밝은 햇빛이 머리 위에 떠오르니 모든 사람이 우러러봅니다. 70년생 재물이 이 안중입니다. 82년생 운동을 할 때 다치지 않게 조심하세요. 94년생 재물이 들어오지만 그만큼 지출합니다.



59년생 주변을 돌아보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세요. 71년생 에너지 넘치는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83년생 노력의 대가를 보게 됩니다. 95년생 연인에게 선물을 하면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상회의四季

업의 상속

인상적인 기사를 보았다. 20년 전 휴친 필통 값이 25만 원이 되어 돌아왔다는 내용으로 청주시에 소재한 한 이마트 기부함에 현금 25만 원과 손편지가 남겨졌는데, 편지에는 어린 시절 철없는 마음에 휴친 필통이 평생 부끄러웠다는 것이다. 세월이 지났지만, 이 기부자는 용기를 내어 고백하며 반성의 마음을 함께 남긴 것이다. 청주시는 이 돈을 취약계층에게 따뜻하게 전하기로 했다는 훈훈한 내용이었다. 세상을 지탱하는 두 기둥이 양심과 수치심이라고 석가모니는 설한 바 있다. 불가에서는 모든 존재는 업(業)의 소산이라고 말한다. 업이란 몸으로 입으로 마음으로 짓는 모든 행위와 사고로 이를 삼업(三業)이라 하며 업만이 자기 재산이니 그림자처럼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고 얘기한다. “남을 죽이면 자기를 죽이는 자를 만나고 남을 이기면 자기를 이기는 자를 만난다.”라는 글귀는 불교의 집아함경에 보이는데, “뿌린 대로 거둔다”는 성경 구절과도 상통한다. 업의 궤적에 따라 결과를 받는 것을 ‘과보’라고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업보(業報)’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업의 과보라는 뜻이다.

이러한 업보는 윤회의 당연한 재료가 된다. 불교 초기경전에 해당하는 앙굿따라 니까야에 업의 상속과 관련한 계승이 나온다. 존재로서 태어난 이상에는 늙고 병들고 죽음을 피할 수 없으며,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사랑하는 아들과 모든 소유물을 두고 떠나가야만 함을. 그러하므로 ‘내가 업의 상속자이고, 업으로 인해 태어나서 업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업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라네. 내가 짓는 착한 행위든 악한 행위든 그 결과는 나 자신이 받아야만 하네’라고. 그래서 후에 대승불교가 자리 잡은 후에는 불가에서는 윤년이 들거나 윤달이 드는 해에는 생전예수재(生前豫修齋) 행사를 한다. 뜻 그대로 살아있을 때 업식을 미리 닦는다는 기도 의식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976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080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스도쿠 X는 가로 세로, 3X3 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도의 퍼즐 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합인도서

2	9	9	7	8	1	6	2	6
6	6	1	2	2	9	8	9	7
8	7	2	9	6	6	9	1	7
6	8	2	9	2	6	9	7	1
2	1	6	6	7	9	2	8	9
7	9	9	2	1	8	2	6	6
9	2	8	6	6	7	1	9	2
9	2	6	1	9	2	7	6	8
1	6	7	8	9	2	6	2	9

7	2	6	2	6	1	9	8	9
6	2	9	8	9	2	7	6	1
8	9	1	9	6	7	2	2	6
2	8	6	8	9	9	1	7	2
6	9	7	1	2	2	8	6	9
2	1	9	7	8	6	2	9	6
9	7	8	6	2	6	9	1	2
9	6	2	2	1	8	6	9	7
1	6	2	9	7	9	6	2	8

‘내국세 20.79% 자동 연동’ 손질 경제성장률·학령인구 변화율 반영

교육교부금 개편

교육부·기획처, 새로운 산식 논의
내년도 교부금 80조~100조 추산
교육재정 보장 수준 등 막판 진통

54년간 이어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20.79% 자동 연동’ 방식이 폐지·개편되는 방향으로 정부 내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교육계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교육부와 기획예산처가 연동 방식 개편에는 공감대를 이룬 가운데 교육재정 보장 수준과 미래대응기금 사용처를 놓고 막판 줄다리기를 이어가면서 당초 이번 주로 거론됐던 개편안 발표 시점도 불투명해졌다.

18일 정부와 교육계 등에 따르면 교육부와 기획처는 현행 내국세 연동 구조를 대신해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해 교육교부금 규모를 산정하는 방안을 놓고 막바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전국 시·도교육청에 배분하는 지방교육재정의 핵심 재원이다. 내국세 연동 구조는 1972년 도입됐으며 당시 11.8%였던 교부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져 2020년부터 20.79%가 적용되고 있다.

그동안 교육부는 안정적인 초·중등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내국세 연동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기획처는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세수가 늘면 교부금이 자동으로 증가하는 구조를 손봐야 한다며 개편을 요구해 왔다.

최근 협의에서는 양측의 입장 차이가 상당 부분 좁혀졌다. 교육부도 내국세 연동 방식 개편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 등을 반영하는 새로운 산식을 놓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처도 지난 17일 설명자료를 통해 “교육부와 교육교부금 개편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전반적인 개편 방향에 합의했다”며 “현재 세부적인 사항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새 산식이 도입되면 교부금 증가 폭은 현행 방식보다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현재 논의되는 산식을 적용할 경우 내년도 교육교부금이 80조원 안팎에 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을 유지할 경우에는 100조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어 두 방식 간 격차가 약 2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추산이다.

막판 협상의 핵심은 내국세 연동을 끊은 뒤 교육재정을 어느 수준까지 보장할 지다. 교육부는 연동 방식을 개편하더라도 현행 20.79%를 적용했을 때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의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기획처는 이를 보장할 경우 사실상 기존 연동 구조를 유지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신설을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의 사용처도 쟁점이다. 기획처는 기금

내 ‘인재·교육계정’을 만들어 영유아·고등·평생교육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교육부는 초·중등 교육에도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계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교원·학부모·학생·시민사회 등 353개 단체가 참여한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8월 국무회의 개편안 상정 중단과 내국세 20.79% 연동제 폐지 철학을 요구했다. 이들은 “학생 수가 감소하더라도 학교 유지와 시설 안전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고정비용은 줄어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도 이날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정부의 의견수렴 절차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 교육감은 “정부에서 교육감들을 불러 자세하게 설명하고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굉장히 소홀하게 다뤄지고 있다”며 “교육단체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도 없었다”고 말했다.

두 부처의 막판 조율이 이어지면서 개편안 발표 시점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정 교육감은 “두 부처 간 입장 차이가 크다”며 “이번 주에는 결정하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로부터 19일 오전 정부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설명을 들었지만 이후 발표가 연기됐다는 설명이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metro



화성 매항리평화기념관.

/경기도

경기도, 웰니스 관광지 7곳 신규 인증

화성 매항리평화기념관 등 선정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화성 매항리 평화기념관 등 도내 관광지 7곳을 ‘2026년 경기도 웰니스 관광지’로 신규 인증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인증된 15곳을 포함해 경기도 웰니스 관광지는 모두 22곳으로 늘었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경기도 웰니스 관광 지문위원회’를 열고 10개 시군 후보지 14곳을 대상으로 최종 심의를 진행한 결과 화성 매항리평화기념관, 용인 법륜사, 하남 아쿠아필드, 양주 가나아트파크, 여주 목야박물관·황학산수목원, 양평 웰스투어센터 등 7곳을 신규 인증했다고 밝혔다.

웰니스 관광은 웰빙과 건강 또는 행복을 의미하는 ‘웰니스(Wellness)’와 관광을 결합한 개념으로, 여행을 통해 몸과 마음의 건강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관광 활동을 말한다.

도는 신규 인증 관광지를 대상으로 전문가맞춤형 자료와 역량 강화 교육, 국내외 홍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태혁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새롭게 인증된 관광지들이 경기도 웰니스 관광의 매력을 더욱 풍성하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각 관광지의 특색를 살린 콘텐츠를 강화해 국내외 관광객이 경기도에서 머물며 휴식과 치유를 경험하고, 관광객 유입과 체류 확대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서울교육청, 학교 시설개선 사업 검증받는다

‘시민참여 현장검증단’ 운영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부터 추진할 학교 시설개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시민이 직접 학교 현장을 찾아 검증하는 절차에 들어간다. 시설 노후도와 개선 필요성뿐 아니라 학교 구성원의 의견까지 확인해 예산이 시급한 학교부터 투입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96개 학교를 대상으로 ‘2027~2028년 교육환경개선 대상사업 시민참여 현장검증단’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검증단은 올해 상반기 실시한 교육환경개선 대상사업 실태조사 결과를 다시 확인해 사업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증한

다. 실태조사 과정에서 선정된 시설 물량과 노후도 등 배점 내용을 현장에서 직접 살펴보고, 학교장과 학생·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도 듣는다.

서울시교육청은 시민과 전문가가 직접 학교 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예산 낭비 요인을 줄이고, 시설 개선이 시급한 학교에 예산이 우선 투입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장검증 결과는 2027~2028년 교육환경개선 대상사업 우선순위 결정에 반영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오는 9월 우선순위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순위를 확정해 공개하고, 해당 순서에 따라 2027년부터 사업 예산 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 최대 40만원

사업 참여자 모집… 31일까지 접수
거래액·중위소득 등 요건 충족해야

서울에서 최근 집을 옮긴 청년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하반기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대상 인원은 최소 4000명.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2024년 1월1일 이후 서울로 전입했거나 서울 안에서 이사한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이다.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면서 올해 7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기준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인 가구 기준 세전 월 소득은 약 384만7000원 수준이다.

지원금은 실제 지출한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 범위에서 생애 1회 최대 40만원까지 지급된다. 중개보수나 이사비 가운데 한 항목만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서울시청.

/메트로신문 DB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다.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하반기 모집부터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제대군인의 신청 가능 연령이 복무기간에 따라 최대 3년 늘어난다. 군 복무기간이 1년 미만이면 1년,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2년, 2년 이상이면 3년을 연장해 적용한다. 이에 따라 2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은 최대 만 42세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류도 줄었다. 신청자가 행정정

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표 등·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직접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기존 5종에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보수·이사비 지출 증빙서류, 통장 사본 등 3종으로 줄었다.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국가보훈대상자, 가족돌봄청년, 청소년부모, 전세사기 피해 청년 등은 우선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청년안심주택 피해 입차인과 청년부상제대군인도 하반기 우선지원대상으로 지원한다. 반지하·옥탑방·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청년도 우선 선정 대상이다.

지원요건을 충족한 신청자가 모집 인원을 넘으면 우선지원대상자를 먼저 선정한 뒤 소득이 낮은 순으로 최종 대상자를 정한다.

서울시는 서류심사와 자격 검증을 거쳐 10월 중 적격자를 선정하고, 이의신청과 서류 보완 절차를 거쳐 12월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 韓투자 이행속도에 트럼프 불만… 한미훈련 축소 배경
▲ 7.7 강진 후 여진 1600차례… 공포에 질린 인니 플로레스섬

/사진 뉴스스

▲ 지난해 인도주의 활동가 350명 숨져… 월드비전 “보호 강화해야”
▲ 우크라, 하룻밤 드론 800대 맹폭… 러시아 총선 앞두고 전쟁 격화

▲ AI에 기업 업무 학습시키려… 구글, 파산한 美 항공사 데이터 인수
▲ 트럼프 지지율 33%로 취임후 최저… 64% 국정 불만



CJ제일제당
美 'KCONLA'서
비비고 체험마케팅
L2



Life

삼성전자
명작 43점
TV로 만나다
L4



판 넓은 중국 오픈웨이트 AI… 기술 한계·수익화 ‘시험대’

중국 첨단산업지도

AI 플랫폼

2023년 중국 항저우에서 설립된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가 2025년 1월 제한된 연산 자원과 낮은 훈련 계산 비용으로 미국 상위권 모델에 견줄 성능을 냈다고 발표하면서 미국이 주도해 온 세계 AI 시장이 흔들렸다.

딥시크 쇼크 이후 알리바바의 큐원(Qwen), 문샷 AI의 키미(Kimi), 조푸AI의 GLM 등이 잇달아 등장했다. 학습을 마친 모델의 가치를 공개하는 ‘오픈웨이트’ 시장에서 중국 개발자들의 비중도 빠르게 커졌다. 학습 데이터와 훈련 과정까지 모두 공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용자가 모델을 내려 받아 자체 서버에 배포하거나 라이선스 범위에서 수정할 수 있다는 점이 시장의 선택지를 넓혔다.

◆딥시크 쇼크 1년 7개월…종합 성능은 미보다 8개월 뒤

딥시크가 추론 모델 R1을 공개한 것은 2025년 1월 20일이다. 딥시크 앱이 같은 달 27일 미국 애플 앱스토어 1위에 오르자 엔비디아 주가는 약 17% 급락하면서 시가총액이 약 5900억달러 증발했다. 당시 미국 증시 역사상 한 종목의 하루 시가총액 손실로는 최대였다.

시장에 충격을 준 것은 높은 성능과 함께 공개된 낮은 훈련 계산 비용이었다. 당시 약 560만달러로 알려진 비용은 R1의 총개발비가 아니라 기반 모델 V3의 전체 훈련 계산 비용이다. 딥시크는 V3 훈련에 사용한 278만8000H800 GPU시간에 시간당 2달러를 적용해 557만6000달러로 산출했다. 선행 연구와 실험, 하드웨어 취득비는 포함되지 않았다.

R1에 이어 딥시크는 2026년 4월 V4 프로와 플래시 프리뷰를 내놨다. 미국 상무부 표준기술 연구소(NIST) 산하 AI표준혁신센터(CAISI)가 같은 해 5월 V4 프로를 평가한 결과 중국 모델 가운데 가장 강력했지만 종합 성능은 공개 출시된 미국 최전선 모델보다 약 8개월 뒤진 것으로 나타났다.

딥시크가 공개한 자체 벤치마크에서는 V4 프로가 오픈스 4.6과 GPT-5.4에 근접해 미국 최전선과의 격차가 약 2개월인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CAISI가 사전에 정한 공개·비공개 평가를 적용하자 약 8개월 전에 출시된 GPT-5와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두 평가의 차이는 과제별 결과에서 드러났다. V4 프로는 수학 PUMaC 2024에서 96%로 GPT-5.5와 공동 1위를 기록했고 공개 소프트웨어 공학 평가인 SWE-Bench Verified에서도 74%로 GPT-5.5의 81%에 근접했다. 반면 CAISI 자체 평가인 포트벤치에서는 44%로 GPT-5.5의 78%에 크게 뒤졌고 추상 추론 ARC-AGI-2에서도 46%로 GPT-5.5의 79%와 격차를 보였다.

◆저가·공개 가중치로 확산…수익화 과제

낮은 API 가격은 딥시크가 이용자를 빠르게 넓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지난 13일 기준



中 ‘딥시크’ 등장에 세계 AI 시장 흔들 낮은 API 가격·가중치 공개로 이용자↑

올해 4월 공개한 ‘V4프로’ 평가 결과 종합성능, 미국 모델에 8개월 뒤쳐져 수학·공학 전전에도 추상추론 등 한계

딥시크 V4 프로 0813 버전의 가격은 100만 토큰당 캐시되지 않은 입력 0.435달러, 출력 0.87달러다. 캐시된 입력은 0.003625달러다.

현재 가격은 CAISI가 평가할 당시보다 크게 낮아졌다. CAISI는 100만 토큰당 입력 1.74달러, 출력 3.48달러를 적용했으며 당시 단가를 기준으로 V4 프로는 GPT-5.4 미니보다 7개 벤치마크 중 5개에서 비용 효율이 높았다.

다만 현재의 낮은 가격이 계속 유지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딥시크는 지난 6일 전체 API 서비스 가격을 상당한 폭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공지했다. 구체적인 인상 폭과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가중치가 공개된 것도 확산 요인이다. 기업은 라이선스 범위에서 모델을 내려받아 자체 서

버에 배포할 수 있어 중국 개발사의 API로 업무 데이터를 직접 보낼 필요가 없다.

오픈라우터에서 중국 오픈웨이트 모델은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주간 토큰 처리량의 평균 약 13%를 차지했다. 중국 외 오픈웨이트 모델은 평균 13.7%, 중국 외 폐쇄형 모델은 약 70%였다. 중국 모델이 플랫폼 전체를 주도한 것은 아니지만 일부 주간에는 비중이 약 30%까지 상승했다.

분석 말기 기준 중국 모델의 역할극 비중은 약 33%였고 프로그래밍과 기술 범주를 합친 비중은 39%였다. 중국 모델의 사용이 기술 작업으로 확대됐다는 뜻이다.

사용량 확대를 수익으로 연결하는 것은 남은 과제다. 디인포메이션은 딥시크의 연환산 매출을 4억~5억달러로 추산했다. 2차 투자 유치에서 거론된 약 740억달러의 기업가치는 매출의 약 148~185배에 해당한다.

딥시크는 7월 중순 약 500억위안 규모의 2차 투자 유치를 추진했지만 같은 달 25일 협상을 중단했다. 이후 8월 6일 조달 절차를 재개한 것으로 보도됐다. 약 5000억위안의 높은 기업가치는 성장 기대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에 걸맞은 수익화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기도 하다.

◆첨단 칩·신뢰는 장벽…美 규제 속 일부 기업은 채택

중국 모델이 넘어야 할 첫 번째 장벽은 연산 자원이다. 미국은 블랙웰 계열 등 최첨단 AI칩의 대중국 수출을 계속 제한하고 있다. 2026년 1월 H200과 동급 칩은 일정한 조건 아래 사례별 허가가 가능해졌지만 중국 기업이 미국 최전선 기업과 같은 규모와 조건으로 연산 자원을 확보하기는 여전히 어렵다.

정치적 신뢰 문제도 남아 있다. 중국에서 서비스되는 일부 모델과 공개 가중치 모델은 자국 규제에 맞춰 민감한 질문에 답을 피하거나 중국 정부의 입장을 반영한다.

미국에서는 중국 모델의 사용을 제한하는 움직임이 이어졌다.

연방 기관 전체의 정부 기기에서 딥시크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은 2025년 2월 발의됐지만 2026년 8월 현재 하원 감독·정부개혁위원회에 회부된 단계다. 지난 7월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AI 모델의 정부 조달 제한과 미 상무부 엔티리스트 등재, 전면 금지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딥시크 API 서비스 가격 인상 계획 저가 한계… 지속가능 수익화 ‘과제’

AI칩 수출제한에 연산자원 확보 난항 정치적 신뢰 문제에 美정부 규제 나서 커서 등 일부 美기업은 중국모델 채택

정부 차원의 규제 논의와 달리 일부 미국 기업들은 중국 모델을 자사 서비스에 도입하고 있다. 아마존웹서비스(AWS)는 베드록을 통해 딥시크와 큐원을 관리형으로 제공하고 마이크로소프트 파운드리도 딥시크와 키미 계열 모델을 서비스한다. 중국 개발사의 API를 직접 호출하는 대신 미국 클라우드 사업자의 관리형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는 방식이다.

미국 AI 코딩기업 커서도 지난 3월 공개한 ‘컴포저 2’의 기반 모델로 문샷AI의 키미 K2.5를 사용했다.

미국 정부의 규제 논의와 민간 기업의 채택이 엇갈리는 가운데 중국 오픈웨이트 모델은 첨단 칩 확보와 정치적 신뢰, 수익화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딥시크가 API 가격 인상을 예고하면서 낮은 가격과 개방성을 앞세운 확산 전략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메트로 한줄뉴스



▲이강인, 아틀레티코 공식 입단식 가져…“모든 대회서 우승 원해”
/사진 뉴시스
▲‘한풀 꺾인 더위’ 프로야구, 25일부터 다시 오후 6시30분 시작

▲설화를 국악관현악으로…서울시국악관현악단 ‘신룡투전’
▲나훈진 ‘호프’, 홍콩 여름 국제영화제 개막작…홍상수 초기작 특별전

▲전국체전에 2만9044명 참가…전산 기반 대진 추첨 도입
▲남자 청소년 핸드볼, 아시아선수권 위해 오늘 요르단 출국